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1000-001139-10

농식품산업형 / 도농교류형 / 지역개발형 / 사회복지서비스형 / 복합형



2011년
농어촌 공동체회사
사례집



[발 간 사]

‘농어촌 공동체회사’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갈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농어촌 공동체회사’란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기업경영방식을 접목, 수익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고, 지역사회 공헌활동 등을 통해 건강한 농어촌 공동체를 키워나가는 조직을 말합니다.

우리부는 전국 443개소의 농어촌 공동체회사 중 사업계획서 등의 심의를 거쳐 올해 54개소의 우수 사업체를 선정하였고, 제품 및 디자인 개발, 마케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양한 성공사례가 나타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불개미영농조합법인(충북 음성)은 ‘농촌 공동체’라는 복숭아 브랜드를 개발하였으며, 남전1리영농조합법인(강원 인제)은 만병초를 이용한 비누와 샴푸를, 장뜰영농조합법인(충북 증평)은 즉석죽제품을 개발하여 농어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한「2011년 농어촌 공동체회사 사례집」은 농어촌 마을이 공동체회사를 통해 생동감 넘치는 농어촌, 창조적인 농어촌으로 탈바꿈하기까지의 노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부는 더 많은 농어촌 마을이 공동체회사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 등을 이뤄낼 수 있도록 창업안내 교육과 맞춤형 경영 컨설팅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농어촌 공동체회사로 인해 우리 농어촌이 활력을 찾고, 국가의 균형발전과 도·농 상생의 구현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1. 12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정책국장 정 황 근





목 차

C · O · N · T · E · N · T · S

▣ 농어촌 공동체회사 소개 6

▣ 농어촌 공동체회사 우수사례

• 농식품산업형 •

1.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함해국	20
2. 불개미영농조합법인	22
3. 산계뜰영농조합법인	24
4. 신라불교초전지정보화마을	26
5. 아자개영농조합법인	28
6. 완주로컬푸드영농조합법인(건강한밥상)	30
7. 용대황태영농조합법인	32
8. 우리들엔영농조합법인	34
9. 장뜰영농조합법인	36
10. 콩세알나눔센터	38
11. 하동배영농조합법인	40

• 도농교류형 •

1. (사)물맑은양평농촌나드리	42
2. (사)충주농촌문화체험협회	44
3. 365행복마을영농조합법인	46
4. 교촌녹색농촌체험마을	48

5. 낙동2리 새농촌영농조합법인(개미들마을)	50
6. 수록골농촌체험휴양마을	52
7. 신대리토고미영농조합법인	54
8. 신리마을회	56
9. 와석 김삿갓영농조합법인	58
10. 천생연분마을	60
11. 파로호느릅마을영농조합법인	62

• 사회복지서비스형 •

1. (사)전라남도친환경농업교육원	64
2. (유)영동군사회서비스센터	66
3. 남전1리주민협의회 영농조합법인	68
4. 여민동락공동체	70
5. 유은복지재단나눔공동체	72

• 복합형 •

1. 배피체험마을영농조합법인	74
2. 안덕과위영농조합법인	76
3. 꽃피영농조합법인	78

• 농어촌형 사회적기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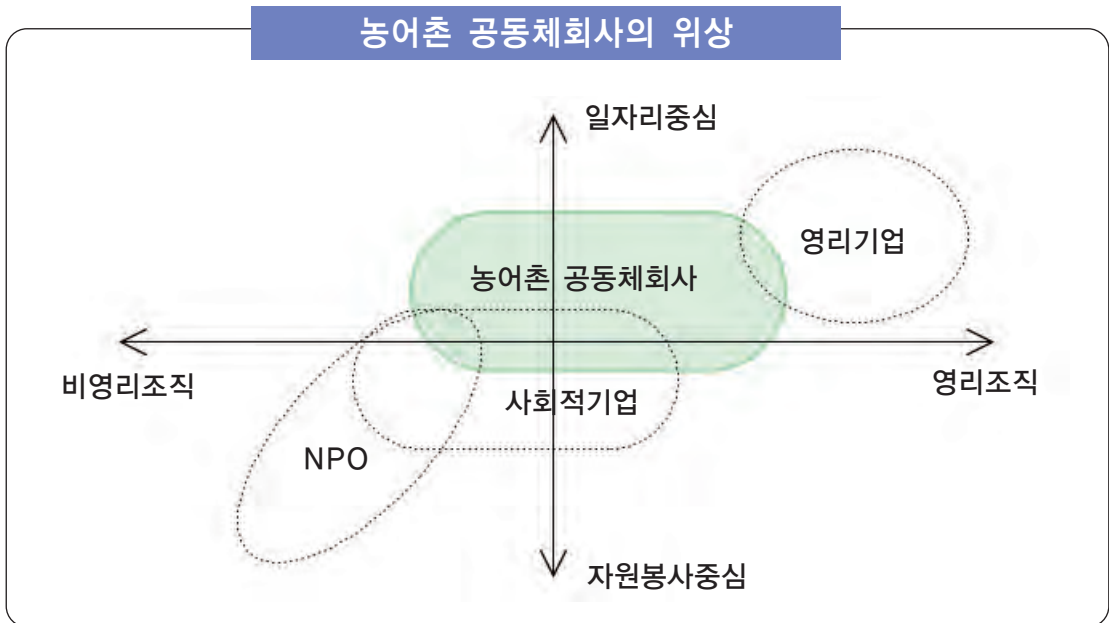
1. 국악예술단 고창	80
2. 해풍친환경영농조합법인	82

▣ 농어촌형 사회적기업 소개	84
-----------------------	----



1. 농어촌공동체회사란 무엇인가?

- 농어촌공동체회사란 지역주민 또는 귀농·귀촌 인력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기업경영방식을 접목하여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조직을 말한다.



- 농어촌공동체회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 사회서비스 공급과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활성화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며, “지역성+공익성”으로 특징을 요약할 수 있으며 지역 주민이나 귀촌인력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공동체”의 성격을 갖는다.
 - 기업경영방식으로 자립성과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수익성”을 특징으로 한다.
 -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농어업법인, 농협 등 기타 비영리 민간단체 등의 다양한 형태를 띠는데, “법인성”으로 대표할 수 있으며 이러한 특징을 지닌 마을단위 법인, 마을어업회사 등도 농어촌공동체회사로 볼 수 있다.

2. 농어촌공동체회사가 왜 필요한가?

-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농어촌 주민의 삶과 관련된 모든 영역을 사업대상으로 한다. 농어촌 지역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이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역할이다
-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자원을 발굴·활용하여 일자리와 소득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한다.

활동 사례

로컬푸드, 농산물 가공 및 유통, 전통공예 등 지역연고산업, 지역특화산업, 관광 및 도농교류(그린 투어리즘), 지역통화, 재래시장 경영, 취업지원, 마을 만들기, 정보 서비스 등

- 농어촌 지역사회 활성화
 - 농어촌 지역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활동 사례

복지(보육시설), 교육(농산어촌 유학, 방과 후 학교, 노인 학교 등), 문화(마을 축제, 여가활동 지원), 보건의료, 고령자 및 장애우 돌봄, 여성·청소년·아동 지원 등

- 농어촌 지역자원 및 환경보전
 - 농어업·농어촌의 다면적 기능을 유지·보전하기 위해 지역자원과 환경 보전을 위한 활동에 앞장선다.

활동 사례

지역의 농업자원 보전(마을·산·하천의 환경 미화, 식수, 에코투어리즘, 용배수로의 유지 관리, 못·비오톱의 보전, 유희농지의 활용, 다랭이 논 보전 등), 야생동식물 보호, 유·무형의 전통적 문화유산 보전 및 활성화(전통건축물, 문화재, 문화, 예술, 축제, 식문화 등), 지역 에너지, 리사이클링 등



3. 농어촌공동체회사에는 어떤 유형이 있나요?

〈 농어촌공동체회사 유형별 현황 〉

유형	합계	농어업 법인	주식회사	비영리 민간단체	임의단체
합계(개소)	443	225	15	65	138
농식품산업형	179	114	6	23	36
도농교류형	176	80	1	25	70
지역개발형	20	9	1	2	8
사회복지서비스형	40	5	4	13	18
복합형	28	17	3	2	6

유형 I **농식품산업형**

-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부가가치 제고와 지역주민의 경제활동 다각화를 위한 사업유형으로 지역 농·특산물의 판로 확대 및 다각화를 통해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함으로써 수익성과 공익성 두 가지 측면에서 농어촌공동체회사의 참여가 기대된다.
- 농식품산업형의 경우 농어촌지역이면 어디서나 일반적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특별한 전문지식이 없어도 지역주민들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로컬푸드, 식품 반가공 및 가공 등이 이 유형에 포함된다.

I 로컬푸드분야

- 로컬푸드 관련사업은 농어촌지역 주민들이 가장 접근하기 용이한 농어촌공동체회사 모델이 될 수 있다.
- 농어촌공동체회사 가운데 로컬푸드와 관련된 조직이 농어촌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농어촌지역의 다양한 조직·단체에서도 로컬푸드와 관련된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향후 참여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

☑ 참고 : 제철꾸러미사업

제철꾸러미사업은 로컬푸드분야에서도 가장 쉽게 농어촌지역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아이템으로 주목된다.

[사업내용]

- 지역 소농 또는 노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경작하고 있는 농지(농경지가 없을 경우 공동텃밭)를 조성, 계절마다 채소 등을 다품목 소량으로 생산하여 꾸러미를 만들고, 인접 도시 소비자들에게 택배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 꾸러미 외 지역 농·특산물을 이용한 가공품을 생산, 꾸러미에 추가하는 것으로 두부, 김치와 절임류 반찬 등 농어촌지역 주부들이 잘하는 가공품을 생산할 수 있다.
- 꾸러미 제품은 가능한 친환경농법으로 생산, 소비자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시지역 소비자단체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판로를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간지원조직 또는 기관·단체의 협조가 중요하다.

횡성텃밭영농조합법인

1단계 : 사업목표 설정하기

- 지역의 소농,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 단독세대의 소득창출과 로컬푸드를 실현

2단계 : 법인체 설립하기

- 사업취지에 공감하는 지역 여성농업인들을 중심으로 출자를 통해 영농조합법인 설립

3단계 : 지역자원 활용하기

- 다품목 소량으로 다양한 제철채소를 생산, 제철채소와 콩 가공품을 꾸러미로 만들어 소비자들에게 택배로 공급하는 직거래 사업을 추진

4단계 : 판로 개척하기

- 서울 강동지역 소비자단체와 연계, 꾸러미 구매 희망자를 모집하여 1주일에 1회 제철채소와 콩 가공품 등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들로 꾸러미를 만들어 공급

5단계 : 지역사회에 환원하기(사업성과를 공동체와 함께 나누기)

- 지역 어린이 대상 영유아 보육사업, 방과 후 학교 등을 운영하여 지역 여성농업인의 육아부담 해소, 지역 농산물의 판매 확대 및 가공사업 추진으로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



II 식품가공분야

- 지역 농·특산물, 특히 과수를 이용한 즙이나 잼 등 단순가공품 생산과 떡, 한과, 된장, 고추장 등 향토음식 가공이 농어촌공동체회사에서 추진할 수 있는 주요 사업아이템이다.
- 과수를 이용한 즙이나 잼은 지역 과수농가에서도 개별적으로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의 가내수공업을 규모화 하는 방식으로 기업화가 가능하다.
- 지역 농·특산물의 가공을 통해 과잉생산 시 산지 출하조절과 부가가치 제고 등 생산조절기능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 노인노동력을 이용한 농식품가공(시니어클럽)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어촌지역은 도시지역보다 고령화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지만, 농어촌지역 실버세대를 위한 사회서비스는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농어촌지역 실버세대들의 복지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몇몇 지역의 시니어클럽 사례는 농어촌지역에서 시니어클럽의 성공가능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사업내용]

- 농어촌지역 실버세대 대상으로 평생학습과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역자원을 활용한 실버세대 일자리 창출로 지역의 활력 증진에 기여한다.
- 실버세대들에게 적합한 사업아이템 발굴로 농어촌지역 어르신들의 소득창출에 기여하며 농어촌지역 어르신들의 일자리사업으로 전통장류 가공사업, 환경미화사업, 두부 및 제과·제빵 등이 간단한 교육과 실습과정을 거쳐 곧바로 사업화가 가능한 품목들이다.

〈 양양 송천떡마을 영농조합법인 〉

1단계 : 개별사업을 공동사업으로

- 1970년대 척박한 농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판매만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개별 농가에서 떡을 만들어 판매하기 시작
- 마을 38가구 중 15가구에서 개별적으로 떡을 생산·판매해 오다가 2009년 4월 영농조합법인을 조직 마을 공동체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2단계 : 판로개척하기

- 법인체를 구성하여 공동체사업을 추진,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을 통해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기 시작
- 외부의 젊은 인력을 채용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3단계 :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모색한다

- 떡 마을이 알려지면서 전국에서 주문이 증가, 향후 사업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 방법을 모색
- 장거리 수송이 가능한 냉장 떡 개발 및 시설설비의 확충,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새로운 떡 개발 등을 추진
- 떡을 테마로 한 마을가꾸기사업 추진 등 현재의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위한 노력을 시도

4단계 : 수익의 일부를 마을에 환원한다

- 사업 초 영농조합법인에 참여하는 가구와 비참여 가구 간 갈등이 있었지만 마을 회의를 통해 협력하는 분위기를 조성
- 떡 원료는 마을주민들이 생산한 것을 우선 구매, 생산되지 않는 원료를 외부에서 구입하는 방식을 통해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배려
- 매년 영농조합법인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의 10%는 마을발전기금으로 조성 연말 주민총회에서 사용방법 결정

5단계 : 마을을 넘어 지역활성화로

- 송천떡마을의 대외 이미지 상승으로 떡 뿐만 아니라 마을 농특산물의 직거래가 확대되어 주민소득이 증가, 인근 마을에까지 파급효과가 발생
- 영농조합법인 운영과정에서 기술과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외부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 귀농·귀촌인구가 증가하여 29가구에서 현재 38가구로 증가



유형
II

도농교류형

- 농어촌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농어촌 체험프로그램 및 농촌관광 등 농어촌 주민과 도시민과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유형이다.
- 도농교류형은 지역 농·특산물의 직거래와 가공 등 다양한 활동이 복합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사업의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크다.
- 기존에 추진된 농어촌지역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지역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세부내용

-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전통테마마을, 정보화마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 다양한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마을과 권역이 전국에 분포되어 있다.
- 마을단위 또는 권역단위의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도농교류에 필요한 하드웨어 기반을 갖추고 있으나, 주민역량 부족으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 일부 마을이나 권역에서는, 사업의 주체로서 법인체를 설립하여 기반시설을 이용한 도농교류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다.
- 법인체 설립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하고, 지역 농가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몫을 하고 있다.

☑ 참고 : 옷뜨르 영농조합법인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계기로 추진되었지만 정부지원이 종료 된 이후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영농조합법인을 결성하여 향후 농어촌공동체회사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사업내용]

- 제주시 한경면 저지·청수·산양·낙천리 등 4개 산간 마을을 연계한 옷뜨르권역 농촌 마을종합개발사업 1단계가 마무리 되면서 승마체험학교와 방문객들의 휴식과 숙박, 체험시설인 ‘옷뜨르빛센터’의 운영을 위해 권역내외 희망자들이 출자하여 영농조합법인 설립하였다.
- 청수 승마체험학교는 제주에 산재해 있는 일반 승마장과는 달리 전문교관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맞춰 승마교육을 실시하고 승마용 말(馬)을 위탁·관리하는 등 체계적인 승마교육을 실시하는 교육장이다.

제주 옷뜨르 영농조합법인

1단계 : 농촌지역개발사업을 통한 사업기반 조성하기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대상지로 선정, 공동체사업 기반조성 시작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숙박, 체험시설인 “빛센터” 건립, 제주 특색을 살려 승마체험학교를 조성, 특히 승마체험학교는 전문교관이 승마교육을 실시

2단계 : 법인체 설립하기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하드웨어 시설을 이용 주민들의 소득사업을 추진, 정부지원 종료 후 사업 지속성 확보를 위해 권역주민들 중심으로 영농조합법인 설립

3단계 : 파워블로거를 이용한 홍보마케팅전략

- 온라인 홍보 중요성을 고려, 일상의 소식과 다양한 체험 활동 등이 블로그 또는 카페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전담인력을 배치

4단계 : 주민이 즐거운 공동체사업 추진하기

- 사업 추진과정에서 영농조합법인에 비참여 주민과 함께 어울리는 등 주민 모두가 즐거운 공동체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개최
- 주민의 기획·운영과 주민이 주인공인 권역 축제를 개최,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혜택은 비참여 주민 포함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



유형 III 지역개발형

- 농어촌지역의 자원을 관리하고 보전하기 위한 활동 : 지역자원 관리, 생태 보전, 경관 유지,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등
- 농어촌지역 자원의 활용도 제고 및 재생자원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활동 : 폐목재를 활용한 집 고치기 및 보일러 공급,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활동 등

세부내용

- 농어촌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자연생태자원의 관리와 보전은 농어촌지역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활동이다. 하지만 인력이나 재원이 취약한 농어촌지역에서는 자원이 무방비로 방치되어 훼손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 최근 녹색성장에 대한 정부의 높은 관심과 관련정책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사업분야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 분야별로는 신재생 에너지 보급의 일환으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시설의 보급 및 사용 확대, 폐목재를 이용한 집수리 및 팻릿보일러의 보급 등이 있다.
- 농어촌지역의 역사와 문화관련 자원의 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사업도 주요한 사업 아이템이 될 수 있다.
- 농어촌지역의 돌담과 전통가옥 등의 유지·관리와 이를 활용한 문화교류프로그램 등은 도시민들에게도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 참고 : 어촌지역의 그물수선 및 제작

어촌지역이면 어디나 그물수선 및 제작이 필요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어촌지역에서 이 작업은 어가 개별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인력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출어시 필요한 그물이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사업내용]

- 그물의 수선 및 제작은 특별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없어도 단기간 훈련으로 작업이 가능하고, 작업과정이 대부분 수작업이기 때문에 정신지체 또는 하체장애를 안고 있는 취약계층에게도 적합한 사업아이템이다.
- 어촌지역의 장애인 또는 이주여성과 취약계층 여성들을 고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 주산마을

1단계 : 마을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임 결성

- 주산초등학교 출신으로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30~40대 젊은 층이 중심, 지역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공동체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

2단계 : 마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설정하다

- 지속가능한 순환농업을 목표로 설정, 주민들과 함께 유채단지 조성
- 유채유를 식용유로 활용, 폐유를 농업용 기계에 활용하는 자원순환형 농업을 추진

3단계 : 로컬푸드를 실천하다

- 유채생산량 증가로 부안군과 협의, 유채유를 지역 초등학교에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
- 초등학교 유채유 공급 성과로 중학교까지 공급 확대 계획, 농산물까지 학교급식에 공급을 준비

4단계 : 지역자원을 에너지로 전환하다

- 유채생산과 급식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 마을에 신재생에너지를 보급 에너지자립 마을 시작
- '09년 지경부 『그린빌리지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 태양광 또는 지열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5단계 : 장기비전을 갖고 차근차근 사업을 추진한다

- 주민들의 지속적인 참여로 지역발전을 위한 장기비전을 마련, 비전 실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유형
IV

사회복지서비스 제공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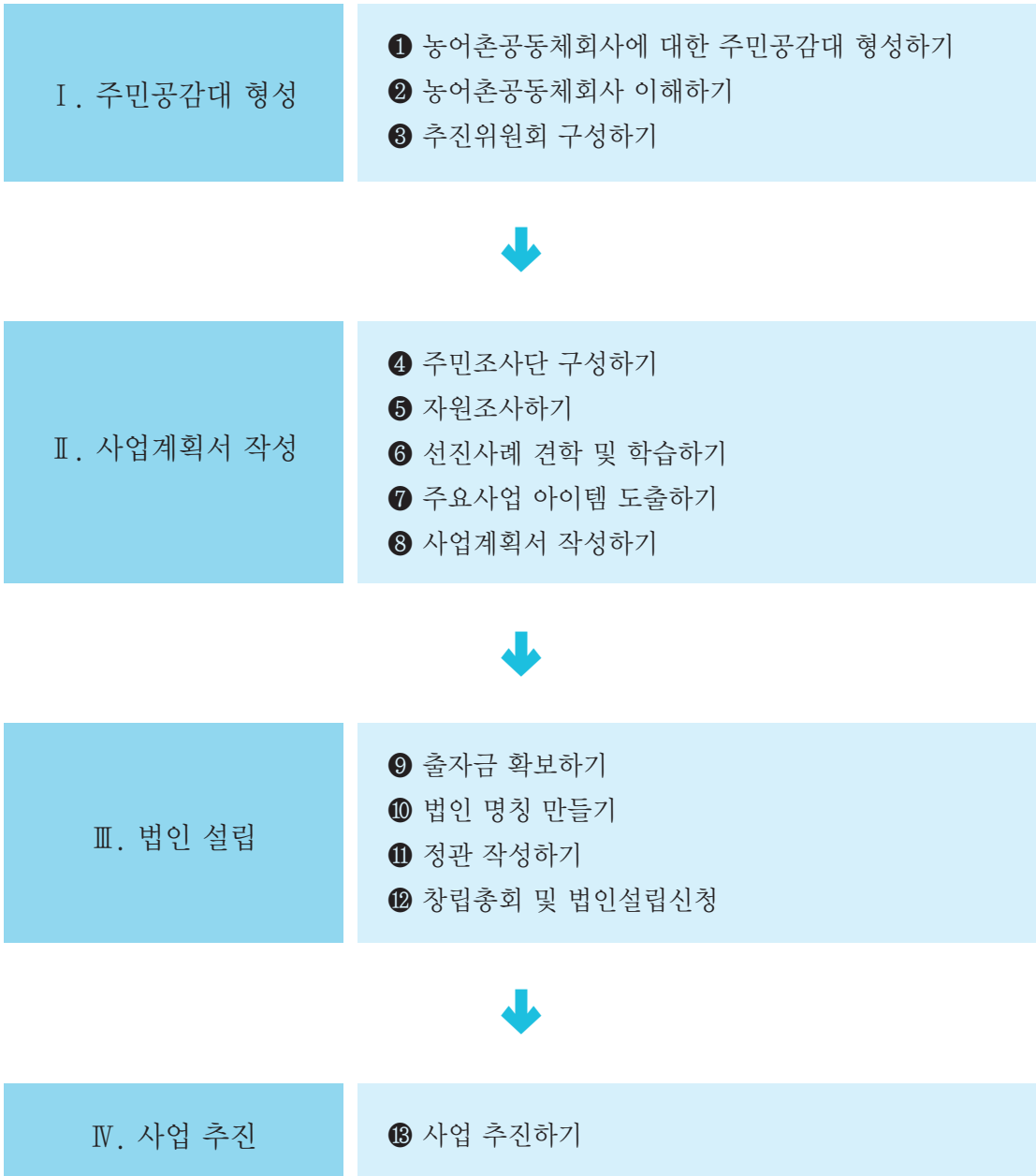
- 농어촌지역에 부족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활동 : 농어촌지역의 교육, 문화, 복지관련 여건 개선을 위한 서비스 제공
- 농어촌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활동 : 노인, 장애인, 이주여성 등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활동

농산어촌 유학

- 농어촌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폐교방지를 위한 대안으로써 농산어촌 유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농어촌지역에 젊은 세대가 감소하면서 폐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존 농어촌지역 어린이들의 교육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또한 귀촌·귀농을 희망하는 도시 젊은 세대들에게도 농어촌지역의 취약한 교육여건이 귀촌·귀농을 결정하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 농산어촌 유학은 경쟁위주의 도시교육에서 탈피하여, 자연 속에서 아이들의 인성과 정서 함양을 위한 새로운 방식의 교육을 희망하는 도시 학부모들에게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유학생들로 인한 지역학교의 폐교 방지로 지역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4. 농어촌공동체회사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농어촌공동체회사 만들기 프로세스]





I. 주민공감대 형성

- 농어촌공동체회사에 대한 주민공감대를 형성하고 농어촌공동체회사 이해하기
 - 농어촌공동체회사를 시작하려면 사업의 주체인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우선 주민들의 농어촌공동체회사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 농어촌공동체회사에 대한 주민공감대가 형성되었다면, 농어촌공동체회사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농어촌공동체회사의 목적, 필요성, 추진방향, 지원내용 등 자세한 내용을 이해해야만 농어촌공동체회사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 농어촌공동체회사에 대한 주민공감대를 형성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을회의를 통해 마을 리더(이장, 새마을지도자 등)가 주민들에게 농어촌공동체회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전문가를 초청하여 학습도 해야 한다.
- 추진위원회 구성하기
 -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직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추진위원회는 주민들을 대표하여 농어촌공동체회사 추진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 농어촌공동체회사에 대한 이해와 참여의지가 강한 주민들로 구성하여야 한다.

II. 사업계획서 작성

- 주민조사단 구성하기
 -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자원 조사를 위해 주민조사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주민조사단 구성 시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 자원 조사하기
 - 사업아이템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지역 자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자원을 조사한 후 성격에 따라 분류하고 분류된 자원에 따라 연관성 있는 사업 항목을 도출한다. 자원을 조사할 때는 자원조사표를 활용한다.
- 선진사례 견학 및 학습하기
 - 사업항목 도출을 위해 지역자원 조사만으로는 아이디어를 구할 수 없다. 선진지 견학 및 학습 후 지역에 맞는 사업항목을 도출하는 것이 성공가능성이 높다. 선진지 견학 및 학습은 농어촌공동체회사 설립 후에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주요사업 항목 도출하기
 - 조사한 지역자원과 선진사례 견학 및 학습을 통해 지역을 최적화 할 수 있는 사업 항목을 도출한다. 도출된 사업항목에 대하여 가장 타당한 사업항목을 선정한다.
- 사업계획서 작성하기
 - 사업계획서에는 지역자원의 활용방안, 운영조직, 사업방향, 사업계획, 재정계획 등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Ⅲ. 법인 설립

- 출자금 확보 및 법인명칭 만들기
 -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다. 법인 설립 전 참여자와 출자금 등을 확보해야 법인 설립이 가능하다. 출자에 참여한 회원들에게는 출자증서를 발급해야 하며 농어촌공동체회사의 성격과 목적에 맞는 명칭을 결정한다.
- 정관 작성하기
 - 법인의 목적, 명칭, 사무소소재지, 자산에 대한 규정, 이사장 및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회원의 가입 및 탈퇴, 자격기준에 관한 규정, 법인의 존립 시기나 해산에 관한 사항 등을 명기한다.
- 창립총회 및 법인설립신청
 - 법적 필수 요건으로 정해진 양식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고 그 근거로 회의록을 작성 및 날인해야 한다. 또한 해당 주무관청에 확인을 하고 법인의 주사무소 위치에 따른 신청서에 설립 신청을 하면 된다.

Ⅳ. 사업 추진

- 사업 추진하기
 - 사업계획서에 근거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01. (유)농업회사법인함해국

유 은 미
☎ 063-856-0922

전라북도 익산시 함라면 함열리 615

향기 가득한 구절초 왕국, 함해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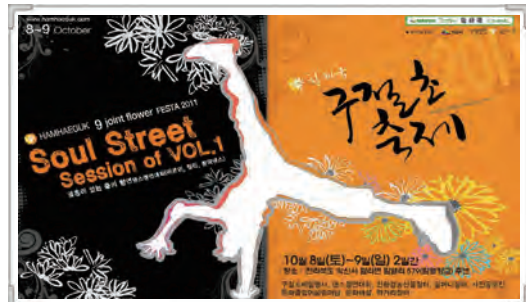
구절초 축제를 통해 관광명소지로 발돋움

함해국이란?

함해국(咸溪菊)은 ‘누구에게나 널리 이로운 국화’ 라는 뜻으로 옛 마한시대 함라의 옛 지명인 감해국(感奚國)을 변형하여 지은 이름입니다. 유기농법으로 구절초, 산국, 감국 등 한국의 자생 식물을 재배하고 이를 활용한 꽃차, 생활용품, 천연화장품 등을 개발하고 있으며 매년 가을 구절초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함해국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동체회사가 탄생하기까지...

함해국은 2005년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자활과 자립을 돕기 위한 사회복지사업으로 출발하여 2009년 농업회사법인 (유)함해국을 설립하였고 같은 해 보건복지부의 자활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10년부터는 구절초 재배 및 가공 사업을 통해 함라 지역 성장의 발판을 마련, 그 결과 “2011년 농어촌 공동체회사 육성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앞으로 지역주민이 더욱 단결하여 활발하게 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런 사업을 합니다.

■ 구절초를 이용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축제 개최

- 꽃따기 및 제다(製茶) 체험, 비누 만들기, 향주머니 만들기 등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연과 친숙해지고 구절초를 응용한 생활제품들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험학습은 특히 노인 및 장애인복지시설과 유치원 및 초·중학생에게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 매년 가을, 구절초가 만개한 함해국에서는 향기로운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구절초체험행사, 친환경농산물장터, 문화클럽어울림마당 등 다채로운 행사와 풍성한 먹을거리가 준비되어 있어 축제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을 통한 구절초 관련 상품 판매

- 현지에서의 판매뿐 아니라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구축, 인터넷을 통해 구절초를 이용하여 만든 차(茶), 비누, 팩, 보디로션, 화장수 등의 판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라졌어요!

■ 매출액

- 홈페이지에서 구절초 관련 상품을 판매하여 2009년 약 100백만원, 2010년 80백만원, 2011년 약 100백만원의 꾸준한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 방문객

- 2009년과 2010년 각각 10천명, 15천명의 방문객이 함해국을 다녀갔으며 2011년에는 구절초 축제를 통해 23천명 이상의 방문객이 함해국을 찾았습니다.

■ 일자리 창출

- 공동대표 2인이 제품개발, 전자상거래 판매, 사무 등을 분담하고 있으며 약 1만평에 이르는 구절초 재배지에서의 원료 및 가공제품 생산을 위해 약 30명의 지역주민 채용이 유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55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참여를 유도하여 경제적 자립을 도움으로써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사는 희망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02. 불개미영농조합법인

한 재 식

☎ 043-878-772

충북 음성군 감곡면 상평리761

새콤달콤한 고품질의 복숭아 브랜드 개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화합으로 일군 공동체회사

불개미영농조합법인이란?

불개미영농조합법인은 마을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성실함이 원동력이 되어 자체 복숭아 브랜드를 개발하였습니다. 저온저장고와 선별기시설이 갖춰진 선별장에서 철저한 품질 관리를 거쳐 선별된 복숭아는 균일한 품질을 유지하여 매년 이마트와 코스트코에 전량 납품할 만큼 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가격 경쟁력도 높아 작목반원들의 연평균 소득이 농가당 7천만원을 웃도는 우량 작목반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농어촌공동체회사가 탄생하기까지...

‘개미실’이라는 지역 명칭을 따 개미처럼 열심히 일하라는 의미에서 이름을 짓게 된 불개미 작목반은 복숭아 공동판매를 통한 수익 창출 극대화를 목표로 2005년 마을 46가구 중 23가구가 결성, 오늘의 농어촌 공동체회사로 자리매김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합니다.

■ '새콤달콤' 고품질의 황도 판매

- 당도에 따라 맛이 달라져 상품성이 판명되는 복숭아는 그 종류에 따라 신황도는 살구맛이 나며 엘바도는 단맛이 나지만 진짜 황도는 새콤달콤한 맛이 납니다. 불개미 작목반의 시고 단 황도는 고품질을 인정받아 임신부 등 특정고객층을 대상으로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라졌어요!

■ 매출액

- 1999년 재배면적 250ha, 복숭아 생산량 25만톤에 불과했던 불개미 영농조합 법인은 2011년 현재 재배면적 342ha, 복숭아 생산량 43만톤으로 생산량이 70%이상 증가하였으며 고품질의 황도 생산으로 평균매출 1,500백만원을 달성하였습니다.

■ 주민들의 의식향상

- 불개미영농조합법인은 영농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작목반원들의 단합을 도모하고 의식개혁을 꾀하는 한편 이마트 바이어와 주기적인 토론을 통해 소비자 취향에 맞는 복숭아 당도 및 품질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03. 산계뜰영농조합법인

이 선 우

☎ 070-8837-2035

충북 옥천군 청성면 산계리 725번지

우렁이농법으로 건강 지키는 '공심미' 쌀 생산



도시로 찾아가는 농촌체험, 아이디어 '반짱'

산계뜰영농조합법인이란?

옥천 관내 5개 단지로 이루어진 친환경쌀 생산단지에 101농가가 모여 경종농업(논농사, 밭농사)과 축산을 연계한 자연순환농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논에 심어질 추청(아끼바레)벼를 엄선하여 육묘하고 있으며 이후 재배에서 판매까지 전 과정을 법인에서 모두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고품질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동체회사가 탄생하기까지...

2003년 5개 농가가 우렁이 농법으로 생산한 쌀이 무농약 인증을 받은 것을 계기로 오늘날 옥천친환경농업지구가 조성되었고 농가는 101가구로 확대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 공동재배, 공동출하, 공동교육을 통해 생산효율성 및 수익을 높이고 자연순환농법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도시와 농촌의 교류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합니다.

■ 발상의 전환이 돋보이는 신개념 농촌체험프로그램

- 2011년 11월 옥천 산계뜰 닷컴(<http://www.sangyeddle.com>)을 오픈, 도시민을 농촌으로 초청하는 기존의 형식을 깨고 농촌 주민이 직접 도시를 찾아가는 농촌 체험을 시행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떡메치기, 두부 만들기, 강냉이 튀기기 등 체험 행사와 고무줄놀이, 술래잡기, 말 타기 등 전래놀이 등을 통해 도시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 친환경 '공심이' 쌀

- 공(空)심(心), 즉 “마음을 비워야 순환이 되고 채워진다”는 뜻의 ‘공심이’ 쌀은 일반 쌀보다 10~15%정도 더 가격이 높지만 친환경 유기농 쌀의 장점을 살려 고수익을 창출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로 인정받아 옥천의 보육시설, 중학교, 고등학교 등 60여 단체 및 학교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라졌어요!

■ 매출액

- 2003년에는 유기농 쌀 재배방식에 어려움을 겪어 적자를 면치 못하였으나 2010년 640백만원, 2011년 700백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정도로 수익률이 개선되었으며 향후 준비 중인 체험학습을 통해 수익 기반을 더욱 다짐으로써 매출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야기가 있는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

- 산계뜰마을의 농촌체험프로그램은 농촌과 도시를 함께 엮는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진행되며 어른들에게는 추억과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농촌사랑을 심어줌으로써 세대 간 격차 해소 및 도시와 농촌의 교류 확산에 힘쓰고 있습니다.

04. 신라불교초전지정보화마을

박 성 수

☎ 054-472-5318

경북 구미시 도개면 도개리 538번지

천년 신라불교 문화를 간직한 역사마을



신라불교초전지마을이란?

신라불교가 처음 전해진 마을로 아도화상이 지은 절의 이름인 '도리사'의 영향을 받아 '도개리'가 되었으며 화려한 신라불교의 뿌리로서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마을입니다. 현재 도개리는 신라불교의 흔적을 찾아온 도시민 및 관광객들로부터 각광받고 있으며 농촌체험활동을 제공하여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농어촌공동체회사가 탄생하기까지...

2005년 12월 정보화마을로 지정되어 2006년부터 도·농간 정보격차 해소,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득 증대를 목표로 정보화마을 홈페이지를 구축, 고향의 정과 소식들을 전하고 고객들에게 농촌의 어메니티와 지역 농·특산물을 꾸준히 홍보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농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활동으로 매달 지역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컴퓨터 교육, 사진촬영 교육 등을 꾸준히 실시하여 노년층의 정보 이용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합니다.

■ 문화유적지의 특성을 살린 관광과 체험 제공

- 신라불교 박물관, 도리사 궁기리 석불상 등 역사문화자원을 기초로 관광기반시설과 다양한 체험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수박 따기, 방울토마토 수확, 벼 베기, 메뚜기 잡기, 감 따기, 양파 수확 등 계절별로 즐기는 농촌체험활동을 제공함으로써 조용한 역사마을에 활기를 불어넣으며 소득 증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라졌어요!

■ 매출액

- 전자상거래를 통한 매출액은 2010년 84백만원, 2011년 약 176백만원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방문객

- 일일 방문객수는 평균 100명에 달하며 스토리텔링으로 이루어진 역사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마케팅을 통해 방문객 증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일자리 창출

- 2009년 1명, 2010년과 2011년 사무장, 운영 관리자 등 1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앞으로 관광명소, 체험명소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사업 추진으로 더 많은 지역주민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05. 아자개영농조합법인

안 성 환

☎ 054-531-1903

경북 상주시 사벌면 덕담리 1071번지

고품질의 친환경 쌀로 수도권 소비자들의 신뢰 확보



기능성 쌀 개발로 자부심 UP! 농가 소득 UP!

아자개영농조합법인이란?

아자개영농조합법인은 고품질의 친환경 쌀 ‘탑라이스’와 ‘아자개쌀’을 개발하여 대형 유통업체인 이마트 등에 납품하고 있으며 수도권 지역의 직거래 전화주문만 한해 3,000가구가 될 정도로 충성고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의 아파트 부녀회와 연계한 직거래 판매를 시행하여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쌀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함으로써 주부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농어촌공동체회사가 탄생하기까지...

2006년 농촌진흥청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고품질 쌀 브랜드 ‘탑라이스’ 생산을 계기로 마을의 86가구가 공동출자하여 아자개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이후 공동체 조직을 통한 효율적인 쌀 생산 및 운영으로 법인 설립 초기에 150ha에 불과하던 재배면적이 600ha로 확대됐으며 참여가구 또한 2011년 현재 136가구로 50%이상 늘어났습니다.



이런 사업을 합니다.

■ ‘아자개쌀’ 과 ‘탐라이스’ 고품질 친환경 쌀 생산

- ‘아자개쌀’ 과 ‘탐라이스’ 는 우리 고유의 품종으로 생산된 고품질의 친환경 쌀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수입쌀에 대항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 기능성을 강화한 신제품 쌀 개발

- ‘2011년 농어촌 공동체회사 육성사업’ 에 선정돼 기능성 쌀 ‘고아미’ 와 가공용 쌀 ‘보람찬’ 을 개발하였습니다. ‘고아미’ 는 10ha규모의 10개 농가, ‘보람찬’ 은 30ha규모의 32농가와 계약 재배하여 지역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라졌어요!

■ 매출액

- 매출액은 2006년 1,000백만원에 불과하였으나 2011년 6,000백만원을 달성하여 공동체회사 설립 5년 만에 매출액이 6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 방문객

- 선진 재배 기술과 법인 운영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매년 천명 정도의 방문객이 아자개영농조합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

- 아자개영농조합법인은 쌀값 하락 등으로 농가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매년 시세보다 10~20%정도 높은 가격으로 지역주민들의 벼를 수매하고 있습니다.

■ 2011년 농어촌 공동체회사 육성사업의 성과

- RPC관리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운영의 효율화를 높였습니다. 또한 DM발송, 홍보전단지 제작, 체험지원 등 홍보·마케팅이 수익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상품 판촉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06. 완주로컬푸드영농조합법인 건강한밥상

노재석

☎ 063-714-4989

전북 완주군 고산면 삼기리 463-2

건강하고 행복한 밥상의 열쇠



농민, 소비자, 지역이 함께 웃을 수 있는 로컬푸드

꾸러미밥상이란?

우리들의 하루 세끼 밥상에 오르는 콩나물, 두부, 채소, 유정란 등 농가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가공식품 8~12개 품목을 한데 묶은 꾸러미를 정기적으로 소비자에게 배송하여 농민은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도시민은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동체회사가 탄생하기까지...

지역의 다양한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농외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완주군의 마을들이 모여 공동체 사업을 추진, 회원 100명을 시작으로 단체조합법인 '건강한 밥상'을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1차 농산물 및 가공식품 판매 등을 통해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2009년 대통령 주제 일자리 전략회의의 보고에서 지역 활성화 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으며 2010년 10월에는 전국의 유일한 로컬푸드형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아 전북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합니다.

■ 신선하고 건강한 식품 제공을 위한 체계적 시스템 구축

- 현재 꾸러미밥상을 이용하고 있는 회원은 약 2,600명이며, 직거래마케팅 활성화, 꾸러미 소비자관리, 직매장 운영 및 관리, 소비자 조직화 관리 등을 통해 지역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로컬푸드 시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또한 계약재배 생산관리, 생산 품질관리, 기획생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다 책임 있는 먹을거리 생산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 직거래장터 운영 및 학교 급식 공급

- 2010년 9월부터 구이 모약산, 봉동 둔산공원에서 고정 장터를 운영하고 전주 시내 아파트 단지 3곳에서는 순회 장터를 열어 소비자를 직접 찾아가고 있으며 인근 학교 4곳의 학교급식에 신선한 식품을 제공하는 등 공급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라졌어요!

■ 매출액

- 꾸러미밥상, 급식, 장터배달 등의 운영으로 법인 설립 첫 해인 2010년에는 183백만원 매출을 올렸고 2011년에는 상반기에만 628백만원의 매출을 올리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 방문객

- 완주군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완주군의 로컬푸드산업 기반을 확립하고 지역 활성화를 이뤄내면서 로컬푸드 성공모델로 각인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완주군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 일자리 창출

- 법인 설립 당시 4명의 직원으로 출발하여 2011년 현재 유통, 구매, 포장, 고객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가 18명으로 늘어나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

- 꾸러미밥상으로 완주군의 로컬푸드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물론 친환경 학교급식, 결식아동에게 식재료 공급 등 사업 영역을 넓혀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산·학·연·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로컬푸드를 통해 건강을 지향하는 식품산업의 선두주자로 우뚝 서고 있습니다.

07. 용대황태영농조합법인 (황태촌)

이 강 열
☎ 033-462-5855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182번지

황태 브랜드로 고부가가치 창출하는 향토 기업



현대적인 생산시스템 구축으로 고품질의 황태 생산

용대황태영농조합법인이란?

용대황태영농조합법인은 그동안 가내 수공업으로 이뤄지던 황태 산업에 현대적인 생산 시스템과 경영방식을 도입하여 지속적인 매출신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지 600평 규모에 4만 상자(3,000kg)의 황태보관이 가능한 황태냉동보관창고와 황태가공공장을 건립하여 고품질의 황태를 생산하고, 건평 300평 지상 3층의 황태 직판장과 150명이 동시수용 가능한 황태식당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동체회사가 탄생하기까지...

지난 2002년, 황태 홍보와 황태 사업 활성화를 위해 21개 농가가 모여 용대황태영농조합법인 '황태촌'을 설립하였습니다. 기존에 개별적으로 생산·판매하던 황태를 공동체를 통해 공동으로 생산·유통·홍보·마케팅·판매하여 영업비용은 절감하고 매출은 극대화해 개별 농가소득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합니다.

■ 황태식품 개발 및 브랜드화로 유통망 확대

- 용대황태를 브랜드화하여 직판장 및 전자상거래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하고 있으며 2006년에는 서울, 대구, 전라, 부산 지사를 설립하여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황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 또한 황태를 이용한 2차 가공식품으로 황태라면, 황태된장, 황태나물 등을 개발하여 시판할 계획입니다.

■ 황태축제 및 주말장터 개최

- 1999년에 처음 개최된 황태축제는 올해 13회를 맞아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축제기간 (4일) 동안 황태요리 경연대회, 공연, 전통놀이 체험, 모닥불 황태 구워먹기 체험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 겨울에 열리는 주말장터에서는 강원도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황태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라졌어요!

■ 매출액

- 2000년 이전에는 황태 생산량이 1,000톤 이하였던 것에 반해 2011년에는 1,500톤 이상을 기록했으며, 황태포와 황태채 판매 및 식당운영으로 4,200백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 방문객

- 2000년 이전에는 연간 방문객이 10천명 이하였지만 1999년 첫 황태축제 이후 방문객이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는 한해 190천명 이상이 용대리를 찾고 있습니다.

■ 일자리 창출

- 현재 정규직 2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매년 축제개최 등 행사에 필요한 30명 이상의 일자리가 꾸준히 창출되고 있습니다.
- 인제군 장애인협회와 협력하여 장애인들에게 황태포 작업을 할당하는 등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회적 의무를 다하는 대표공동체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08. 우리들엔영농조합법인

김 종 태

☎ 054-955-9351

경상북도 고령군 고령읍 본관리 671

친환경 무농약 딸기로 해외시장 개척



가야산의 맑은 물 머금고 비옥한 토양에서 자란 “명품 딸기”

우리들엔영농조합은?

딸기 재배 역사 30년을 자랑하는 딸기 산지인 고령군에 위치한 우리들엔영농조합은 생산량은 물론 위생과 품질 등 모든 면에서 인정받는 딸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녹색 농업을 지향하는 만큼 GAP 인증, 친환경무농약 인증 등 각종 품질기준과 인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친환경 교육, 재배 교육 등을 통해 고품질의 딸기를 생산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동체회사가 탄생하기까지...

귀농인 6명을 포함하여 법인회원 65명 모두 지역주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경영은 선출직 임원이 하고 그 외 업무는 전문 인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10여개의 딸기 생산조직이 조합에 참여하고 있으며 500여 농가가 활동중입니다.



이런 사업을 합니다.

■ 친환경딸기 재배 및 수출로 농가 수익 증대

- GAP 인증을 받아 농산물이력 추적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무농약 딸기 재배 44농가, 유기농 딸기 재배 15농가가 친환경딸기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유통하고 수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림수산물부가 선정한 원예전문 생산단지에 지정됨에 따라 고품딸기를 해외에 널리 알리고 수출함으로써 농가 수익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공동체조직을 통한 딸기유통 및 가공처리시설 확보

- 공동 집하장 및 공동선별장 운영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딸기를 공동으로 선별·규격·포장·출하하고 있으며 특히 공동선별 작업으로 균일한 딸기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지역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 미생물 배양시설을 이용, 지역 농가에 미생물을 무상으로 공급함으로써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라졌어요!

■ 매출액

-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에 딸기를 납품하여 2010년 5,400백만원, 2011년 약 7,000백만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 지역개발

- 딸기(설향, 장희, 육보)제품에 대하여 GAP 인증(185명), 친환경무농약 인증(72명), 세이프슈어 인증(60명)을 받아 녹색 농업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 공동체조직의 성과를 높이고 소득 증대를 이룩함으로써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주민복지 확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 일자리 창출

- 작목반 운영 및 유통, 친환경 인증 등 경영관리, 생산관리 60명의 정규직을 고용하고 있으며 추후 가공시설확충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09. 장뜰영농조합법인

김 태 곤

☎ 043-838-3843

충북 증평군 증평읍 내성리 370번지

영양혼합곡과 죽제품 개발로 웰빙 트렌드 선도



쌀로 수익 창출하고 나눔 활동하는 사회적 기업

장뜰영농조합법인은?

장뜰영농조합법인은 혼합곡, 장뜰쌀, 유색미, 즉석죽 등을 생산하는 농산물가공유통업체로 장뜰 잡곡 작목반과의 계약재배를 통해 지역민의 수익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녹미, 홍미, 황금미 등 유색미와 현미, 흑미, 찹쌀미 등을 결합한 15종류 혼합곡은 웰빙 트렌드에 발맞추어 소비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 2011년도에는 '온프락'이라는 죽 브랜드를 개발하여 영유아용, 성인용 즉석 죽 제품을 선보여 바쁜 현대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농어촌공동체회사가 탄생하기까지...

잡곡, 유색미 등 혼합곡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국산농산물의 가공이 수익창출에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 2006년 15명의 회원이 모여 장뜰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에는 증평 특산물인 인삼과 홍삼을 이용한 죽 제품을 개발하였고, 2011년에는 HACCP(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인증을 받아 보다 엄격하고 안전한 식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합니다.

■ 영양맞춤 혼합곡과 발아혼합미 판매

- 15가지 잡곡이 혼합되어 영양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혼합곡 제품과 영양소의 집결체인 씨앗 눈을 싹틔워 식이섬유, 아미노산, 칼슘 등 고영양소를 함유한 발아 혼합미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 맛과 영양이 살아있는 즉석 죽 브랜드 개발

- 올해 “2011년 농어촌 공동체회사 육성사업”을 통해 ‘온뜨락’이라는 즉석 죽 식품 브랜드를 선보여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자연답은 죽’과 영유아용 이유식인 ‘맛있는 이야기 죽’ 등 엄선한 우리 농산물로 만든 즉석죽 식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라졌어요!

■ 매출액

- 2006년 자본금 200백만원으로 사업시작 후 가공농산물 판매로 매년 연평균 매출 470백만원 이상을 꾸준히 달성하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

- 장뜰작목반과의 계약재배를 통해 안정적인 판매처를 확보함으로써 마을주민들의 수익 증대 효과를 창출하였습니다. 또한 장뜰영농조합법인은 증평군 나눔캠페인 쌀 기부 등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 일자리 창출

- 법인 설립 첫 해 정규직 4명에서 2011년 현재 20명으로 고용이 확대되었으며 지속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10. 콩세알 나눔센터

서정훈

☎ 031-933-5591

인천 강화군 양사면 교산리 1328번지

생명 · 나눔 · 순환의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 기업



친환경 농산물 가공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콩세알 나눔센터는?

‘콩세알’은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땅에 구멍을 파고 벌레가 먹을 한 알, 새가 먹을 한 알, 사람이 먹을 한 알을 심었다는 뜻으로 ‘생명 · 나눔 · 순환’의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국내 1호 농촌형 사회적 기업으로 우렁이 농법을 활용한 논농사, 순무 재배, 두부와 장류 등 콩을 활용한 식품가공 사업을 통해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동체회사가 탄생하기까지...

1999년에 만든 마을의 생산 공동체 ‘일벗’이 밑거름이 되어 귀농인들의 농촌 정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콩세알 나눔센터가 설립됐습니다. 귀농인들의 농촌 생활 적응을 돕고 소득을 창출하기 위하여 묵과 두부를 이용한 식품가공사업에 착수, 2006년 봄에 330㎡(100평) 남짓한 두부·묵 공장을 짓고 본격적으로 농산물 가공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이를 통해 26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마을 주민들의 일터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합니다.

■ 친환경 농산물 가공사업

- 콩세알 나눔센터의 대표 상품은 가마솥으로 저어가며 끓여 만든 전통 방식의 국산콩 두부로 화학 첨가물을 전혀 넣지 않고 오직 신안 앞바다에서 길어온 천연 간수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강화 인근과 강원도 철원 등지에서 재배한 친환경 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강화 특산물인 속노랑고구마 전분으로 만든 묵도 인기 상품입니다.

■ 로컬푸드 지원사업

- 격주에 한 번씩 회원들에게 두부, 묵, 유정란, 채소 등을 배달하는 '꾸러미' 사업을 전개해 로컬푸드 시장을 적극 개척하고 있으며 설탕, 백미, 화학조미료를 쓰지 않고 건강한 식단을 제공하는 '콩세알 농민식당'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라졌어요!

■ 매출액

-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이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어 해마다 매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체 사업 매출액이 연간 600백만원대를 기록하였습니다.

■ 지역개발

- 콩세알에서 사용하는 국산콩 중 30%는 강화지역 콩을 수매하고 있으며 고령 농업인의 생산물을 전량 수매하여 가공, 판매함으로써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안정적인 생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 농가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농업을 다시 살리기 위해 친환경 퇴비살포, 영농교육, 제조작업 등 친환경 영농대행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 전체 직원 중 30%는 60세 이상의 어르신들로 이루어져 있고 직원 평균연령이 50세에 달할 만큼 일자리 취약계층인 노년층에게 고용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11. 하동배영농조합법인

김 태 곤

☎ 055-883-9988

경남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850-2번지

수확, 선별, 포장의 공동화로 고품질의 ‘배’ 생산



해외수출과 체험상품 개발로 매출 ‘쑥쑥’

하동배영농조합법인은?

하동배영농조합법인은 270ha재배지에서 매년 8,000톤 이상의 배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사질양토에서 생산된 무공해 하동배는 향이 좋고 당도가 높아 추석 제수용품과 선물용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고품질을 인정받아 해외로도 수출되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농어촌공동체회사가 탄생하기까지...

하동배영농조합법인은 마을단위의 작목반으로 운영되다 마을 전체의 매출 증대를 위해 1997년 7개 마을 230농가가 힘을 합쳤습니다. 하동배는 기존의 개별 농가단위의 수확에서 벗어나 가격정보를 활용한 공동 수확과 자동 선별기에 의한 선별 및 포장을 통해 고품질 브랜드로 변신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형 유통회사와의 직거래 및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직거래 판매 등 다양한 유통망을 확보, 수익 증대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합니다.

■ 배즙 개발 및 판매

- 하동배영농조합법인은 친환경인증을 받은 배 생산 이외에 ‘2011년 농어촌 공동체회사 육성사업’을 통해 배즙을 개발, 판매함으로써 사업영역을 확장시켰습니다.

■ 지역농산물과 연계한 체험상품 개발

- 배 농장에서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팜스테이와 인근 지역의 명소와 연계한 테마여행을 개발하여 하동배를 홍보하는 것은 물론 지역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라졌어요!

■ 매출액

- 법인 설립 전에는 개별단위의 경영으로 농가당 평균 소득이 28백만원에 불과했으나 공동체회사 출범 후 2011년 농가당 평균소득이 40백만원을 기록하며 영업수익이 40% 이상 증대하였습니다.
- 공동 판매로 인해 농수산물 경매수수료, 농산물시장 사용료 등으로 영업비용이 25% 절감되어 효율적인 농업생산관리 시스템 구축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현재 일본뿐 아니라 대만, 괌,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으로 수출을 추진하고 있어 유통 경로 확대를 통한 소득 증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일자리 창출

- 체험상품 개발로 인해 새로운 업무가 발생하고 방문객이 증가함에 따라 20명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더 많은 고용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01. (사)물맑은 양평농촌나드리

홍 석 기

☎ 031-774-5427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산 48-1번지

20개 마을이 합심해 만든 관광체험테마마을



체험관광의 네트워크화로 개성 넘치는 체험이 한가득!

(사)물맑은 양평농촌나드리는?

(사)물 맑은 양평농촌나드리는 전국 최초의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로 양평의 농촌체험 마을들이 양평농촌나드리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각 마을의 개성을 그대로 살린 관광 체험 테마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물맑은 양평농촌나드리’ 홈페이지 (<http://www.ypnadri.com>)에서는 20개의 마을이 제공하는 체험프로그램, 숙소와 식당, 먹을거리, 주변에 둘러볼 곳 등의 정보를 볼 수 있으며 문의와 신청이 편리해 체험객들이 쉽게 정보를 찾고 여행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농어촌공동체회사가 탄생하기까지...

서울에서 불과 1시간도 걸리지 않는 지리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체험객들의 불만과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남에 따라 양평의 체험마을들이 힘을 합치게 되었습니다. 각 체험마을의 대표들은 경쟁보다는 협력을 통해 양평지역의 인지도를 높이고 도시와 농촌의 교류에 앞장서는 데 뜻을 모아 2006년 사단법인을 창립하였습니다.



이런 사업을 합니다.

■ 마을별 특색 있는 체험활동 제공

- 친환경농법체험, 한지와 짚을 이용한 공예체험, 염색과 비누체험, 영화제작 체험, 과일을 직접 수확해볼 수 있는 과수체험, 민물고기잡기 체험, 얼음썰매 지치기 체험 등 각 테마가 살아있는 체험프로그램으로 체험객들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 작은 텃밭에서 누리는 농촌 생활

- 전원생활을 즐기고자 하는 수요자의 취향에 맞춰 작은 체재형 주말농장을 임대하고 있으며 도시민들은 주말농장에서 내 집처럼 살면서 농작물 재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달라졌어요!

■ 매출액

- 2006년 사업시작 후 2007년 150백만원, 2008년 230백만원, 2009년 330백만원, 2010년 590백만원, 2011년 890백만원으로 꾸준히 50%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 방문객

- 농어촌 공동체회사 설립 전 개별농가 단위로 방문객의 발길이 작은 수준이었으나 홈페이지 구축과 실시간 예약 시스템 도입에 힘입어 2006년 천명 이하였던 방문객이 2010년 20천명, 2011년 30천명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 지역개발

- 양평군의 체험마을 네트워크화로 인해 20개의 각 체험마을들이 활력을 되찾았으며 양평지역의 홍보 및 이미지 제고는 물론 양평군의 관광 브랜드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일자리 창출

- 각 마을별로 체험객의 방문이 증대됨에 따라 정규직 6명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 일용직은 지속적으로 고용되고 있으며 한 해 동안 전체 일용직 채용규모는 2천명 이상으로 농사 이외에 주민들의 수익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02. (사)충주농촌문화체험협회

박 춘 성
☎ 043-842-0245
충북 충주시 직동 403번지

‘와유바유’ 충주 지역의 대표 농촌체험브랜드로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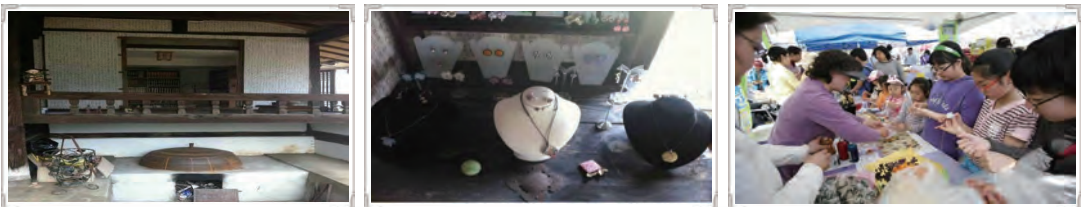
2011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 농촌문화 홍보·이벤트 부문 대상 수상

(사)충주농촌문화체험협회는?

(사)충주농촌문화체험협회의 농촌체험브랜드인 ‘와유바유(<http://www.waubau.com>)’는 도시민들을 위한 농장체험, 음식체험, 교육체험, 스포츠체험, 웰빙체험 등을 통해 지역 고유의 먹을거리와 볼거리, 쇼핑거리 등을 제공함으로써 도시민과의 매개체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충주 지역의 관광산업 인지도를 높임으로써 지역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농어촌공동체회사가 탄생하기까지...

충주의 농촌 마을들은 개별 단위 농가로 농가소득의 대부분이 농산물 수확으로 얻은 것이었습니다. 이 곳 역시 여느 농촌마을처럼 소득 감소, 인구 유출로 이어지는 농촌 지역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변신을 모색하던 중 수도권권과 그리 멀지않은 지리적 이점을 이용, 체험마을이 하나둘씩 생겨나게 되었고 2007년에는 15개의 마을이 결합하여 공동체회사를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48개의 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합니다.

■ 농촌사랑 키워주는 농장 체험 및 교육 실시

- 다솔우리꽃농원에서는 야생화 체험, 천등산메주에서는 장 담그기 체험, 건강 장아찌 만들기 체험 등을 통해 농촌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 외에 청송사슴농장, 향산리 미술체험학교 등에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즐길거리, 볼거리, 먹을거리가 풍성한 '와유바유' 축제

- 만들어바유, 즐겨바유, 함께놀아바유, 잡서바유의 4가지 테마로 이루어진 '와유바유' 축제는 1인 5,000원으로 입장 시 떡과 음료를 제공하며 무료 족탕체험 및 놀이기구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공연, 장기자랑, 놀거리, 먹을거리, 농산물직거래 장터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달라졌어요!

■ 매출액

- 협회를 설립하기 전에는 사과, 밤 등 농산물 수확이 매출의 주를 이뤘으나 2007년 협회 설립 후 마을 연계 체험, 공동판매장, 공동식당 운영으로 농가 평균 영업수익이 40%이상 증대하였습니다.

■ 방문객

- 협회 설립 전 연간 방문객이 1천명 이하였던 것에 반해 2011년 한해 방문객이 20천명을 넘었으며, '와유바유' 축제에만 5천명 이상의 방문객이 다녀가 지역축제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

- 2011년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의 농촌문화 홍보·이벤트 부문에서 '와유바유' 브랜드가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사)충주농촌문화체험협회는 하나의 마을 단위의 개념에서 벗어나 충주 농촌지역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지역을 알리는데 앞장설 계획입니다.

■ 일자리 창출

- 축제 개최 및 공동체 사업으로 방문객이 증대됨에 따라 100명 이상의 고용창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03. 365행복마을영농조합법인

신 호 선

☎ 070-8826-3650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장열리

행복하고 건강한 여행



“365행복마을에서 친환경 실천하고 로하스 삶 꿈꿔요”

365행복마을이란?

맑고 깨끗한 공기와 산에서 강, 계곡, 들판으로 이어지는 천혜의 자연환경이 아름답게 어우러져 있는 마을입니다. 전통적인 농경문화가 발달한 지역으로 생태체험, 친환경농사체험 등 풍부한 체험자원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도심에서의 접근성이 좋고 차량의 소음이 없으며 마을 환경이 쾌적해 조용하고 편안한 휴양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농어촌공동체회사가 탄생하기까지...

2007년 강원도 새농어촌건설 사업에 선정되어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지정되었으며 문화관광부 로하스 지원 사업에도 선정되어 현재 20가구 3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365행복마을은 상부상조 정신과 전통적인 인적·물적 자원을 바탕으로 기업 경영방식을 도입,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함으로써 농어촌 활성화에 힘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합니다.

■ 몸이 건강해지는 농촌체험프로그램 운영

- 우렁이방사, 손으로 모심기, 무농약 토마토 가공체험 등 다양한 친환경농사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산나물 토피야, 산나물주먹밥, 유기농두부, 올챙이묵 등 맛있고 건강에도 좋은 웰빙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깨끗한 자연과 천연자원을 이용한 산소마사지, 천연염색, 아토피 비누 제조 등 아토피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 친환경 농산물 판매 및 펜션 운영으로 수익 창출

- 무농약 토마토, 산나물 등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판매하고 있으며 펜션과 민박을 운영해 방문객들에게 편안한 숙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라졌어요!

■ 매출액

-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숙박, 웰빙음식 판매, 친환경농산물 판매를 통해 2010년 72백만원, 2011년 81백만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특히 토마토를 비롯한 친환경 농산물을 농협에 출하함으로써 판로를 확대하고 수익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일자리 창출

- 녹색농촌마을로 지정된 후 방문객이 늘고 소득이 증대되어 친환경교육, 펜션 관리 등 마을주민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04. 교촌녹색농촌체험마을

우 동 추

☎ 054-862-7755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교촌리 350번지

체험프로그램의 체계화 · 다양화로 도 · 농 교류의 선두주자



지역주민들의 공동기금 조성으로 모범적 운영

교촌녹색농촌체험마을은?

교촌녹색농촌체험마을은 2003년 전국 마을가꾸기 경진대회 장려상 수상, 2005년 국가 균형발전위원회 지역 우수사례 선정, 2008년 도농교류 국무총리상 수상 등 다수의 수상을 하며 도 · 농 교류의 우수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폐교를 활용한 체험관, 통나무집, 야외수영장, 원두막, 잔디운동장, 농사체험장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농어촌공동체회사가 탄생하기까지...

교촌녹색농촌체험마을은 폐교된 학교를 주민들이 공동기금을 조성하여 매입하고 농식품부의 녹색농촌체험마을 지원사업으로 새롭게 단장하여 2003년 6월 개장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지역주민 56명이 180백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공동운영한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농촌의 가치와 자원을 활용하는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농촌체험의 선진모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합니다.

■ 계절별 맞춤 체험프로그램

- 봄에는 밭 만들기, 들꽃관찰, 농작물 파종, 봄나물 캐기 등, 여름에는 물놀이, 미꾸라지 잡기, 옥수수 따기, 감자 캐기, 물총 싸움, 곤충관찰 등, 가을에는 벼 베기, 도토리 줍기, 과일 따기, 고구마 캐기, 콩타작, 허수아비 만들기 등, 겨울에는 얼음 썰매타기, 연날리기, 비석치기, 쥐불놀이 등 사계절마다 특색 있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일정별 맞춤 체험프로그램

- 당일 체험프로그램과 1박2일 체험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고객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라졌어요!

■ 매출액

- 교촌녹색농촌체험마을은 2002년 설립 이후로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 연평균 매출 80백만원을 올리고 있으며 다른 농어촌 공동체회사에 비해 마을주민들이 부업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 농외소득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 2011년 농어촌 공동체회사 육성사업 지원 효과

- 교촌녹색농촌체험마을은 시간대별, 날짜별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카탈로그를 제작하는 등 체험 프로그램을 체계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체험 프로그램을 한눈에 볼 수 있어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http://www.교촌농촌체험학교.kr>)를 구축하여 예약의 편의성을 높이고 체험객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05. 낙동2리 새농촌영농조합법인 (개미들마을)

최 법 순
☎ 070-8876-9991
강원도 정선군 남면 낙동리 496번지

청정자연 속에서 도·농상생의 미래를 여는 개미들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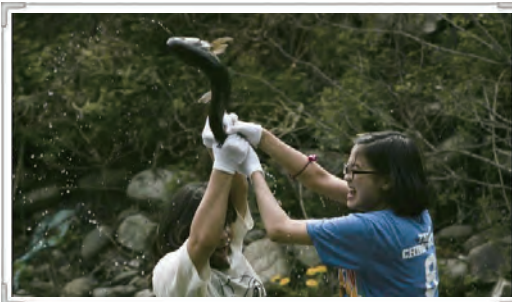
흙내음 가득한 씩씩~산촌체험!

개미들마을이란?

강원도 정선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개미들마을은 주민들이 개미처럼 부지런하다하여 이름 지어진 마을입니다.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마을을 흐르는 동남천 양쪽으로 비옥한 농토가 형성되어 있어 고추, 더덕 등 고품질의 유기농산물을 생산·판매하고 있으며 산촌마을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동체회사가 탄생하기까지...

전형적인 산촌마을인 개미들마을은 생활고와 이농현상 심화로 존폐 위기에 처하게 되자 2008년 낙동2리 새농촌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마을주민의 힘을 모았습니다. 전체 36개 농가 중 34농가가 영농조합법인에 참여하여 기존에 개별적으로 판매하던 농산물을 공동으로 유통, 홍보, 판매함으로써 농가 소득을 증대시켰으며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서비스 제공으로 농외소득 증대와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을 일궈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합니다.

■ 물고기 잡고 떡 메치고 ~ 살아있는 농촌현장체험

- 계곡에서 송어 잡기, 파종 및 수확 체험, 농경 박물관 견학, 떡메치기와 인절미 시식, 동굴 생태 탐험, 풍경차 타기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농촌을 이해하고 우리의 전통 문화를 배울 수 있습니다.

■ 밭에서 나는 건강먹을거리 판매

- 두릅, 참죽나무잎, 참취, 원추리, 개미취, 홀잎나물, 미역취, 곤드레, 고비, 고사리 등 건강해지는 먹을거리 산채를 판매하고 있으며 그 중 곤드레 나물을 음식점에 직거래 유통시켜 연간 230백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라졌어요!

■ 매출액

- 농산물 판매, 체험프로그램·숙박 운영 등으로 2009년 270백만원, 2010년 480백만원, 2011년 720백만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농가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 방문객

- 2008년 법인 설립 후 방문객은 2009년 11천명, 2010년 18천명, 2011년 28천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시교육청 수학여행 장소로 적극 활용되고 있어 향후 더 많은 체험객이 마을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일자리 창출

- 농촌문화체험관 운영을 맡고 있는 청년회 소속 14명, 식당 및 농산물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부녀회 소속 18명, 마을환경정화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노인회 16명 등 총 48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06. 수록골휴양마을

이명석

☎ 063-546-8558

전북 김제시 백산면 수록리 4-11

청정 유기농산물로 건강한 마을



네트워크 구축으로 체험프로그램사업 협력 활발

수록골휴양마을이란?

수록골휴양마을은 화학비료나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은 친환경 농법으로 기른 동충하초와 버섯, 신선초, 케일, 쌈채소 등의 유기농 채소로 유명하며 유기농 농작물을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에게 공급함으로써 수익 창출 및 지역농산물 홍보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또 마을 주민들이 화합하여 새로운 농작물 재배기술을 습득하고 수록골의 농작물 재배기술을 전파하는 기술센터를 운영하는 등 다른 마을과의 정보공유를 통해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농어촌공동체회사가 탄생하기까지...

김제시 백산면 지역을 체험관광 및 도농교류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2009년 지역 내 8개 농업경영체가 뭉쳐 사업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른바 ‘수록골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에는 수록골마을을 비롯해 솔솔포도원, 안시성옹기, 팔봉도예, 천지원, 풀꽃나라, 천목원, 백산마작목반이 소속되어 있으며 체험프로그램 사업의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합니다.

■ 풍부한 자원과 네트워크를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제공

- 수록골마을은 야산과 넓은 경작지, 비옥한 토양을 갖춘 청정지역으로 자연자원을 활용한 농사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청포도 수확, 전통장 담그기, 웅기 만들기 등 네트워크로 연계된 농가들과 협력하여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체험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 유기농산물의 직판 및 온라인 판매

- 수록골마을의 자랑인 유기농채소, 친환경버섯, 기능성곡물 등 유기농산물과 국화베개 등 공산품을 직판매장,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라졌어요!

■ 매출액

- 수록골마을 지도자의 농촌체험사업 활성화에 대한 의지와 뜨거운 열정이 사업성과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고 있으며, 그 결과 2009년 182백만원이었던 매출이 2010년 405백만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 농촌체험사업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지도자와 참여 농가들과의 협력으로 앞으로 더 많은 수익 창출이 기대됩니다.

■ 방문객

- 지난 2009년 3천명이었던 방문객이 2010년에는 15천명으로 5배에 가까운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 주요 방문객은 유치원생,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가족 및 직장인이며 방문객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 주민들이라는 점을 미루어 앞으로도 도시민의 발길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

- 수록골 마을과 인근 농업경영체가 위치한 지역은 인근에 전주시, 김제시, 익산시, 군산시 등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인접해 있어 방문객 수요 측면에서 유리한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발판으로 체험관광 및 도농교류의 거점으로 거듭날것입니다.

07. 신대리토고미영농조합법인 (토고미마을)

한 상 열

☎ 033-441-7254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신대리 387-1번지

적극적인 친환경농법 실천으로 농가확대



친환경농법으로 생산한 '우렁이농쌀' 자체 브랜드 개발

토고미마을이란?

농사일에 품을 팔면 꼭 쌀로 품삯을 받았다하여 토고미(土雇米)에서 이름 지은 토고미마을은 화천군 상서면 신대리에 위치한 전형적인 강원도 농촌마을로 북한강 지류인 파포천의 맑은물과 비경을 자랑하는 비래암, 만산동 계곡이 아름다운 경관을 이루고 있는 청정마을입니다.

농어촌공동체회사가 탄생하기까지...

저소득과 이농현상으로 농가가 70여개로 축소되자 마을 활성화 및 새로운 소득원 개발을 위해 2003년 토고미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인 우렁이농법으로 쌀을 재배하기 시작하여 쌀, 고추, 감자 등이 친환경 품질인증을 받았으며 특히 친환경농법으로 생산한 '우렁이쌀'의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고 상표등록을 하여 브랜드 인지도와 소비자신뢰도를 높임으로써 도시민으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을공동체를 조직하여 주민들이 힘을 합쳐 노력한 결과, 70여개였던 농가가 7년 만에 80여개로 늘어나 마을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합니다.

■ 폐교를 리모델링한 자연학교 운영

- 마을 내 폐교를 리모델링하여 자연체험, 농촌체험, 문화체험 등 다양하고 재미있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봄·여름·가을·겨울 계절별 체험프로그램과 일년 내내 실시되는 연중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살아 숨 쉬는 자연 속에서 농촌문화를 체험하는 마을로 입지를 굳히고 있습니다.

■ 소비자들의 안전한 식탁을 책임질 친환경 농산물 판매

- 토고미장터에서는 강원도 청정지역에서 수확한 안전한 먹을거리로써 우리의 식탁을 지키겠다는 각오로 무농약 오리쌀과 무농약 고추, 콩, 토종꿀, 감자 등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 체험객들을 위한 숙박 및 편의시설 운영

- 목조로 지어진 깨끗한 현대식 펜션을 비롯해 수련회·워크숍 등을 위한 단체숙박 시설과 세미나실을 두루 갖추고 있으며 캠프장, 박물관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라졌어요!

■ 매출액

- 농산물 판매, 체험프로그램 및 숙박시설 운영 등으로 2009년 341백만원, 2010년 460백만원, 2011년 590백만원의 매출을 올리며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 방문객

- 2009년 21천명, 2010년 38천명, 2011년 42천명으로 방문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일자리 창출

- 지역주민들에게 농촌체험 연결·진행, 자연학교 운영 등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2009년 22명, 2010년 21명, 2011년 15명의 고용 창출을 이뤄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08. 신리마을회

김 선 태

☎ 033-552-1659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신리2반

추억 속에 아련히 남아있는 옛 고향의 모습과 흔적이...



추억 속에 아련히 남아있는 옛 고향의 모습과 흔적이...

신리마을이란?

신리마을은 강원도 산간 오지의 순수함과 고향의 따뜻함을 그대로 간직한 산촌마을입니다. 아름다운 너와집이 모여 있는 너와지붕 펜션 단지와 다양한 산촌마을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장, 그리고 마을 특산물과 맛있는 먹을거리가 가득한 마을공동운영식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농어촌공동체회사가 탄생하기까지...

강원도 산간에 위치하여 농업 여건이 좋지 않은데다 점점 인구수가 줄어들어 마을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신리마을. 이를 안타깝게 여긴 주민들이 모여 변화를 모색한 결과, 신리마을은 마을의 특징인 너와지붕의 특색을 살린 산촌체험마을로 변신하였습니다. 농가의 참여율도 높아져 현재는 58가구 중 56농가가 참여중입니다.



이런 사업을 합니다.

■ 사계절 내내 즐거운 산촌체험!

- 신리마을에서는 계절에 따라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봄에는 손두부 만들기와 너와 만들기, 여름에는 신나는 개울가 물놀이, 가을에는 단풍놀이, 겨울에는 얼음 썰매타기와 화로문화 체험 등을 통해 특별한 추억과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 농·특산물판매 및 식당운영

- 계절별로 머루, 포도, 산나물, 옥수수, 감자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특히 머루와인 공장을 설립하여 “끌로너와” 머루와인을 개발·판매하고 있습니다.
- 매일 식당을 운영할 정도로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신리마을! 좋은 재료를 사용해 맛있고 가격도 저렴한 산채비빔밥, 송이버섯, 감자전 등이 인기 메뉴입니다.

이렇게 달라졌어요!

■ 매출액

- 개별농가 소득과는 별개로 산촌체험, 특산물 판매, 식당운영 수입으로 한해 평균 200백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 방문객

- 농어촌 공동체회사 설립 전 방문객이 거의 없었으나 2003년 설립 후 방문객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 체험 및 식당이용객이 2만 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특히 KBS 예능프로그램인 <1박 2일>에 소개되는 등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효과로 인해 향후 더 많은 방문객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 지역개발

- 방문객의 편의를 위하여 마을에 무선 인터넷이 보급됐으며 마을기반조성 사업을 통해 주민들 역시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일자리 창출

- 매년 평균 30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수입이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마을주민들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09. 와석 김삿갓영농조합법인

박 순 용

☎ 033-374-7390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와석1리 1048번지

방랑시인 ‘김삿갓’의 멋과 풍류를 느낄 수 있는 테마공간



지역의 역사문화콘텐츠와 연계해 관광소득 창출

와석 김삿갓영농조합법인이란?

와석 김삿갓영농조합법인은 조선 후기의 천재시인 김삿갓의 유적지로 잘 알려진 강원 영월군의 지역 특색을 살려 조선민화박물관, 묵산미술박물관 등과 협약을 체결, 역사문화콘텐츠와 연계한 농촌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가집 형태의 김삿갓 주막거리를 조성하여 전통주막 음식 판매와 시인의 풍류를 느낄 수 있는 테마공간으로 관광객들에게 차별성 있는 문화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동체회사가 탄생하기까지...

와석 김삿갓영농조합법인은 박물관의 문화콘텐츠와 주변 농촌마을의 융합을 통해 마을 발전을 도모하고자 와석 김삿갓영농조합법인을 설립, 지난 2009년 김삿갓문화관이 들어서 있는 묵산미술박물관 앞에 총 사업비 210백만원을 들여 조선시대 풍취를 그대로 재현한 김삿갓 주막거리를 완공함으로써 박물관을 거점으로 지역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합니다.

■ 농촌체험프로그램 및 김삿갓주막거리 조성

- 민물고기 잡기, 박물관 투어, 김삿갓계곡 트래킹, 김삿갓생가 탐방 등 영월의 차별성 있는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농촌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김삿갓주막을 운영해 막걸리, 빈대떡, 전병, 순대 등 토속음식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 지역 농·특산물 판매

- 농산물 직판장을 통해 친환경 우렁이 쌀, 콩, 송이버섯, 개두릅, 포도, 고춧가루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대도시의 직판행사 참가, 자매결연단체와의 직거래 등 판매경로를 다양화하여 지역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라졌어요!

■ 매출액

- 2011년 총매출 73백만원으로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로 연간 15백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농촌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연간 43백만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 가공시설을 운영하여 지역 쌀의 도정 수수료와 친환경 쌀, 잡곡 등의 포장 판매 수익으로 연간 15백만원의 수익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방문객

- 박물관과 연계한 영월군만의 차별성 있는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김삿갓주막거리 조성으로 2010년 3천명, 2011년 5천명이 마을을 찾았습니다.

10. 천생연분마을

고 세 영

☎ 031-855-6223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삼상리 210-2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그린마을



서울 근교에서 농촌문화체험 즐겨요!

신리마을이란?

천생연분마을은 2005년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지정되었으며, 2007년 행정안전부의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된 후 마을가꾸기 사업 및 도농교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서울에서 1시간이 채 걸리지 않아 접근성이 뛰어나고 마을 대부분이 그린벨트지역이어서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연꽃을 이용한 체험행사와 농사체험 등 즐길거리가 많아 체험하고 배우는 즐거움이 가득한 마을입니다.

농어촌공동체회사가 탄생하기까지...

마을공동체조직인 천생연분운영위원회를 결성하여 연(蓮)사업 및 화훼사업, 체험마을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마을 인근에 위치한 송추유원지, 일영유원지, 장흥국민관광단지 관광객에게 연가공 식품 등을 판매하고 관내 식당에 식용꽃 등을 공급함으로써 새로운 건강웰빙식품 공급마을로 발전했습니다. 또한 화훼의 단순 판매가 아닌 가공 판매를 통해 지역주민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합니다.

■ 마을의 자연 및 인적자원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 연잎 채취, 연자공예, 연잎차 만들기, 연 천연염색 등 연꽃을 이용한 백련체험과 식용꽃체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꽃사진 찍기, 한지공예, 도자기체험 등 예술체험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 양주시 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체험 활동

- 무형문화재인 양주농악대와 협력하여 양주농악을 배우고 시연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주민들이 양주농악을 배워서 향후 협연을 할 계획입니다.
- '문양염색 디자인 페어'를 개최, 교육농장인 트로이목마와 협력하여 문양염색을 체험하고 직접 디자인한 의상으로 패션쇼를 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라졌어요!

■ 매출액

- 숙박, 음식 판매, 농산물 판매, 체험프로그램 운영, 주말농장 운영으로 2008년 약 19백만원, 2009년 약 65백만원, 2010년 약 99백만원의 매출을 올리며 매년 전년대비 50%이상의 매출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

■ 방문객

- 서울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당일체험객의 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며 2008년 1천명, 2009년 6천명, 2010년 9천명이 천생연분마을을 찾았습니다.

11. 파로호느릅마을 영농조합법인

오 세 건

hukinoi@naver.com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유촌리 552-1

향기로운 블루베리 속에서 즐기는 녹색관광



‘친환경’과 ‘에너지 절감’ 두 마리 토끼 잡는 산림탄소순환마을

파로호느릅마을 영농조합법인이란?

청정자연과 풍요로운 농·특산물이 자랑거리인 파로호느릅마을에서는 계절별 테마가 있는 신나는 농촌관광을 즐길 수 있습니다. 봄에는 용화산 산채축제, 여름에는 블루베리 음악축제, 가을에는 메뚜기축제, 겨울에는 산천어 낚시축제가 열립니다. 또한 연중 내내 산림복합경영단지, 착한 숲 자연학교, 화천한옥학교, 현장귀농학교, 블루베리 재배단지, 황토펀션 등을 운영해 체험객과 방문객에게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동체회사가 탄생하기까지...

한국블루베리협회 임원으로 재직 중인 김응수 교수가 귀농하여 ‘채향원’이라는 블루베리 체험 농장을 조성한 것이 계기가 되어 마을주민과 공동소득 사업으로 블루베리 재배 농가를 확대·운영 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에는 10가구로 구성된 화천 블루베리 연구회를 구성하였으며 현재 50여 가구가 참여하며 2만여 주의 블루베리 재배단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합니다.

■ 사계절 내내 즐기는 테마축제와 체험

- 파로호느릅마을에는 사계절 테마축제와 함께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나무와 풀, 벌레가 함께 자란 용화산 자락의 산채 속에서 삼림욕을 즐길 수 있는 산림복합경영단지, 전통한옥기술교육 및 체험이 가능한 한옥학교, 귀촌을 준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현장귀농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농·특산물 판매 및 숙박시설 운영

- 블루베리, 애호박, 토종꿀, 자연산송이, 장뇌삼 등 지역의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통나무집을 운영해 방문객의 숙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라졌어요!

■ 매출액

- 계절마다 특색 있는 다양한 농촌체험프로그램과 축제 운영으로 2010년 270백만원, 2011년 300백만원 이상 매출을 올렸습니다.

■ 방문객

- 농어촌 공동체회사 설립 전 방문객이 거의 없었으나 2005년 설립 후 방문객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 20천명 이상 방문객이 파로호느릅마을을 다녀갔습니다.

■ 지역개발

- 파로호느릅마을은 산림청 지원 사업에 선정, 산림탄소순환마을로 지정되어 목재부산물을 이용하여 대체연료를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1km 반경 내에 모여살고 있는 마을 100여 가구가 중앙난방시스템을 천연에너지로 사용하여 이른바 '에너지 자립마을'로 다시 태어날 예정입니다.

■ 일자리 창출 고용창출

- 매년 평균 24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어 수입이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마을 주민들의 의식이 향상되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01. (사)전라남도친환경농업교육원

김 상 식

☎ 061-381-1217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황금리 275-3

친환경농업교육과 농촌문화체험을 한 곳에서!



모범적인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친환경 농업 “대상” 수상

(사)전라남도 친환경농업교육원은 ?

친환경농업의 육성과 발전을 목적으로 전라남도의 지원 아래 설립된 전라남도친환경농업교육원은 농업기술센터의 친환경농업 위탁교육을 맡고 있으며, 유기농업의 현장체험교육 및 기술 전수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농촌민박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을 희망하는 소비자들을 위한 친환경농산물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동체회사가 탄생하기까지...

전라남도친환경농업교육원은 생태농업진흥을 통해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살기 좋은 농어촌공동체를 가꾸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각종 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의 발전에도 모호하며, 이를 통해 진정한 도시와 농어촌의 상생을 실현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런 사업을 합니다.

■ 다양한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 친환경 생태농업 작목반의 활성화를 위해 기술을 연구하고 농업인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관련 일자리를 지원하는 등 연대지원사업도 함께 펼치고 있습니다.
- 생태농업 및 농촌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농촌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유치원 및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농촌마을의 한옥민박체험, 놀이체험, 친환경농산물 수확체험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친환경농산물 판매 및 음식점 사업

- 쌈채소, 토마토 등 친환경농산물의 판매 및 가공·유통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으며 건강한 먹을거리로 만든 음식을 판매하는 '건강식당' 운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라졌어요!

■ 매출액

- 2005년 두리농원의 8개 농가가 무농약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2011년 한해 300백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 방문객

- 전라남도 친환경농업과, 농업기술원, 22개 시·군 기술센터의 친환경농업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소비자 초청행사를 지속적으로 주최함으로써 지난 2009년 5천명이었던 방문객 규모가 2011년 7천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 지역개발

- 친환경농업의 모범적인 실천으로 전라남도,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로부터 친환경 농업 대상 및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 인근의 친환경농장 연합을 통해 곡류, 과일류, 채소류, 가공식품 등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먹을거리를 지향하는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를 맞추고 있습니다.

■ 일자리 창출

- 친환경농산물 인증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의 업무를 위한 4명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02. (유)영동군사회서비스센터

박범계

☎ 043-744-4949

충북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740-1번지

여성과 중증장애인 지원으로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실현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서비스 확충

[유]영동군사회서비스센터는?

(유)영동군사회서비스센터는 참여, 공개, 투명한 운영을 실현하고 기업윤리를 강화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불안정한 고용 문제를 해소하고 여성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지역사회의 사회적서비스를 확충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 복지 증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동체회사가 탄생하기까지...

(유)영동군사회서비스센터는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업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8년 5월에 설립되었습니다. 같은 해 12월에는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아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동시에 수익을 창출하는 '착한 기업'으로서 지역 사회의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지역취약계층을 위한 위탁사업 추진

■ 지역취약계층을 위한 위탁사업 추진

-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 도우미 파견사업과 CSI사업(저소득층 결손아동 일대일 맞춤형 학습지도사업)을 위탁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바우처 사업 시행 및 사회복지모델 개발

-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각종 바우처 사업 시행자로 선정되어 보다 적극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사회복지의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 지역사회공헌활동

- 지역조사 사업을 지원하고 지자체와의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맺어가며 지역주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영역의 확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역할에 대한 연구 활동을 통해 보다 책임 있는 지역사회의 리더로 거듭날 계획입니다.

이렇게 달라졌어요!

■ 농산물 가공 상품 개발

- 2011년 ‘농어촌 공동체회사 육성사업’ 추진으로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에만 국한되어 있던 사업영역을 확대하여 영동군의 대표 농작물인 꽃감을 이용한 가공 상품(꽃감쌈, 대추꽃감쌈 등)을 개발하였습니다.

■ 일자리 창출

- 2008년 사회복지서비스센터 시작 당시 10명이었던 직원이 현재 14명으로 늘어났으며 다양한 복지서비스 개발로 꾸준히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03. 남전1리 주민협의회 영농조합법인

박 주 열
☎ 033-462-9188
강원도 인제군 남면 남전리 7

‘태양광’으로 수익 창출하는 두메산골



지역자원 활용한 각종 법인 사업으로 연 15% 성장

남전1리 주민협의회 영농조합법인이란?

남전1리는 강원도 특유의 산지와 계곡으로 둘러싸여 있어 외부와의 고립 등 지형적 단점이 있지만 일조량이 풍부하고 산악지형에서만 자생하는 만병초 및 각종 산약재 등 천연자연자원을 갖고 있어 이를 활용한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새로운 소득원과 지역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동체회사가 탄생하기까지...

산간지형의 단점을 장점으로 이용한다는 아이디어로 2007년 주민협의회와 영농조합 법인을 구성하여 친환경적이면서도 지속가능한 사업아이템인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 하였으며 마을주민들의 안정적인 고용과 소득기반을 다지고자 종합장묘센터를 유치하여 수익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합니다.

■ 자연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수익사업 운용

- 강원 중북부 산간 지방의 풍부한 일조량을 이용, 남전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여 수익 창출은 물론 친환경에너지 보급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 맑고 서늘한 산간지역에서만 나는 만병초를 이용한 상품 개발 및 각종 산약재 육묘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 산악지형을 이용한 모터 레저 스포츠 사업인 '아르고'를 운영하여 산촌에서만 즐길 수 있는 체험관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종합장묘센터 유치로 마을지원 사업 전개

- 인제군과의 민간 사무 위탁 계약 체제를 통해 종합장묘센터인 '하늘내린 도리안'을 운영하여 주민 고용을 늘리고 상조업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 햇살마을 농산물 판매

- 옥수수, 감자, 고추, 콩 등 농산물과 고로쇠, 송이, 만병초 등 특산물을 판매하고 있으며 메밀 막국수, 닭볶음탕, 닭백숙, 민물매운탕 등 맛깔스러운 향토음식도 함께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라졌어요!

■ 매출액

- 각종 법인 운영사업으로 수익이 증가해 2011년 900백만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연 15%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 지역개발

- 태양광발전소, 전국 최초의 아르고 사업, 만병초 육묘사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일자리 창출

- 지역 실정을 고려한 사업 실시로 18명의 고용 창출을 이뤄냈습니다.

04. 여민동락공동체

강 위원

☎ 061-353-1141

전라남도 영광군 묘량면 영양리 713-7

공경과 나눔을 통해 '복지 너머의 복지' 추구



모시잎 송편 판매, 김장 축제로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

여민동락공동체는?

비영리 민간단체인 여민동락공동체는 농촌지역의 어르신과 지역주민을 위한 각종 복지·문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소년 복지 공간 및 문화공연을 마련하고 주민도서관을 운영하는 등 농촌지역 어르신과 청소년의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동체회사가 탄생하기까지...

2008년 여민동락 노인복지센터를 열고 방문요양, 주간보호서비스 등 재가노인복지 사업을 시작한 여민동락공동체는 2009년부터 비영리단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2009년 '찾아가는 주치의' 의료연계사업을 통해 안과진료를 시행하였으며 같은 해 8월 마을기업인 '여민동락 할매손'을 설립, 영광특산물인 모시잎 송편 공장을 운영하여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합니다.

■ 지역특산물 생산 및 판매

- 모시잎 송편 공장 운영과 김장축제에 지역 농산물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김장축제의 경우, 김치의 절반은 나누고 절반은 판매하여 농민과 도시민, 지역 내 소외계층과의 상생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 지역주민의 경제적 자립 지원 및 복지시설 운영

- 여민동락 노인복지센터에서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시행하고 행복노인일자리 사업단을 통해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있으며, 간이 목욕탕, 주인 없는 시골чат집, 작은 도서관 등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설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라졌어요!

■ 매출액

- 모시잎 송편, 두부콩 등 지역특산물 판매를 통해 2009년 42백만원, 2010년 127백만원, 2011년 186백만원의 매출을 올리며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

- 목욕탕, 주인 없는 시골чат집, 작은 도서관 등 문화복지시설의 확충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휴경지에 모시잎, 콩 등을 재배하여 농촌의 새로운 어메니티를 창출하고 국토의 건전성 유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일자리 창출

- 모시잎 송편 공장 운영 등으로 2009년 4명, 2010년 20명(65세 이상 어르신 12명 포함), 2011년 16명(65세 이상 어르신 12명 포함)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05. 유은복지재단 나눔공동체

이 종 만

☎ 054-858-9956

경북 안동시 남선면 지골길 18

장애인들에게 자활의 꿈을 키워주는 희망울타리



친환경 농산물 브랜드를 통한 이윤 창출로 공익사업 견인

유은복지재단 나눔공동체란?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유은복지재단 나눔공동체는 저소득층 및 취약 계층의 근로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장애인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을 제공하는 한편 장애인 근로자 사회재활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싹채소, 베이비채소, 국산 콩나물을 친환경으로 재배하여 '초록이슬새싹'이라는 브랜드를 개발, 이윤을 창출하여 더욱 활발한 공익사업을 위한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동체회사가 탄생하기까지...

지역 내에서 일자리를 갖지 못하여 타 지역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난 많은 안동시의 장애인들이 적응에 실패하고 다시 돌아오자 그 대안으로 1994년 1월 장애인 자활·자립의 장인 '나눔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보다 안정적인 장애인의 직업재활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2002년 6월 '사회복지법인 유은(唯恩)복지재단'을 설립하였으며 경상북도에서 최초로 장애인 근로 작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합니다.

■ 친환경 농산물 브랜드 개발 및 판매

- 새싹채소, 베이비채소, 콩나물 등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한 농산물을 ‘초록이슬새싹’이라는 브랜드로 개발하여 롯데슈퍼, 양재농협, 가나유통, 초록들(급식) 등 대형 유통업체를 통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 꾸준한 상품개발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 획득

- 2006년 새싹채소가 안동시 특산품(제2006-11호)으로 지정되었으며 2008년 새싹채소, 베이비채소, 콩나물이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았고 이어 같은 해 보건복지가족부의 장애인 생산품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이렇게 달라졌어요!

■ 매출액

-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량이 월평균 40톤에 육박하고 있으며 2009년 1,200백만원, 2010년 1,700백만원, 2011년 2,000백만원의 매출을 달성, 이는 중소기업의 매출 수준에 육박하는 것으로 사회복지형 농어촌 공동체회사 중 매우 높은 자립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 공동체 활동 및 지역개발

- 장애인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과 장애인 근로자의 사회재활훈련을 실시 등 안동시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실시해 장애인 자활·자립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 일자리 창출

- 유은복지재단 나눔공동체는 정규직 73명을 고용하고 그 중 70% 이상이 장애인으로써 취약계층의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2011년 농어촌 공동체회사 육성사업 추진 성과

- 친환경 농산물의 영양과 성분 분석을 통해 보다 안전한 먹을거리 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친환경농산물의 판매·유통을 관리하는 ‘더존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한편 입간판과 전단지 제작하는 등 홍보 및 판촉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01. 배외체험마을영농조합법인

정 인

☎ 061-453-1096

전남 무안군 몽탄면 이산리 582-2

오감(感) 만족형 체험마을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건강 상품 개발로 브랜드가치 향상

배외마을이란?

이름만큼이나 토속적이고 정감이 넘치는 배외마을은 참여 농가를 중심으로 노인회, 청년회, 부녀회, 향약초 작목반을 조직해 공동체를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같은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향기+관광+체험’의 복합형 체험관광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허브와 좋은 자연’을 주제로 한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동체회사가 탄생하기까지...

배외마을의 전체 회원농가 중 21농가가 참여하여 1997년 법인을 설립하였고 녹색농촌 체험마을의 운영 및 경영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참여 농가 중 선정된 대표 농가가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향기의학회, 동신대학교 관광학과, 목포세무서, 여행사, 목포 YMCA 등과 결연을 맺어 공동마케팅을 비롯한 다양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합니다.

■ 계절별 맞춤형체험프로그램 운영

- 봄에는 봄나물 채취와 딸기 따기, 여름에는 농촌일손돕기와 물고기 잡기, 가을에는 가을걷이와 고구마 캐기, 겨울에는 김장김치 담그기와 눈썰매타기 등 계절별 맞춤형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건강즙 및 허브가공상품 판매

- 배피마을에서 생산되는 전체 양파 생산량의 87.5%에 달하는 약 70톤을 양파즙 및 양파김치로 가공하여 약 10,000박스 정도 판매하고 있으며 민들레즙, 헛개나무즙 등 각종 건강즙도 가공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 향약초 작목반을 통해 생산되는 허브식물 생산량 중 90% 이상을 허브차, 아로마 테라피 오일, 목욕용품 등으로 상품화하여 판매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라졌어요!

■ 매출액

- 무안양파와 허브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여 2008년 180백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2009~2011년에는 3년 연속 연간 200백만원의 매출을 꾸준히 기록했습니다.

■ 방문객

- 다양하고 특색 있는 농촌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2010년 한해 4천명의 관광객이 배피마을을 방문했습니다.

■ 지역개발

- 양파, 향약초 등의 지역특산물을 기반으로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였으며 계약재배를 통해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를 꾀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농촌의 정, 고향의 가치가 담긴 농산품 및 체험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해 방문객이 배피마을을 '제2의 고향'으로 여길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02. 안덕파워영농조합법인

유 영 배

☎ 063-227-1000

전북 완주군 구이면 안덕리 95

대한민국 최초의 건강힐링체험마을



“자연의 품 안에서 건강 지켜요!”

안덕마을은?

전북 완주군 모악산 남쪽자락에 위치한 안덕마을은 원악덕, 미치, 장파, 신기 등 4개 마을 주민들이 뜻을 함께해 만든 마을 공동체회사입니다. ‘깨끗한 자연 속에서의 치유와 회복’이라는 특색 있는 콘셉트로 다양한 건강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통농업에서 한발 더 나아가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농촌자립공동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동체회사가 탄생하기까지...

고령화와 인구감소, 농가 소득 감소로 위기에 처해있던 안덕마을은 마을주민들이 힘을 모아 변신을 꾀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2007년 완주군 파워빌리지에 선정되었고 2008년 4개 마을 발전협의회를 구성, 2009년 1월 안덕파워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였으며 2009년 10월 건강힐링체험마을로 테마를 변경한 후 본격적으로 마을공동체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합니다.

■ 건강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 민속한의원과 연계하여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건강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식이요법 강의 등을 통해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유익한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몸이 건강해지는 다양한 체험시설 운영

- 몸에 좋은 황토와 한약재로 만든 황토한증막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쑥뜸 체험을 통해 방문객들이 대자연 속에서 휴식과 심신회복을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황토로 만든 집에서 숙박과 체험을 동시에!

- 황토방으로 만들어진 원룸 형식의 민박집 4개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숙박은 물론 강의장으로 이용 가능한 요초당(25평)에서는 전통서예 배우기, 합죽선 만들기, 천연비누 만들기 등의 다양한 민속문화체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농·특산물 판매 및 웰빙식당 운영

- 죽염된장, 죽염간장, 감효소, 표고버섯 등 마을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있으며 마을에서 직접 키우고 재배한 유기농산물을 즐길 수 있는 유기농채식 뷔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라졌어요!

■ 매출액

- 황토민박집, 웰빙식당, 건강체험, 농산물 판매 등으로 2010년 390백만원, 2011년 약 500백만원의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 방문객

- 2010년 약 30천명이 안덕마을을 찾았으며 2011년 말까지 35천명의 방문객이 예상되는 등 방문객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일자리 창출

- 운영위원장, 사무장을 비롯한 상근직 9명과 텃밭관리, 황토민박집 관리 등 비상근직 14명, 총 23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 죽염된장 작목반(10명), 임업작목반(8명), 죽염김장김치 작목반(10명) 등 지역 주민이 주축이 된 공동체 마을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03. 꽃뫼영농조합법인

이 춘 복

☎ 041-943-8002

충청남도 청양군 장평면 화산리 524-2

차(茶) 개발과 축제로 부가가치 창출



마을 전체가 체험학습현장이인 녹색체험마을

꽃뫼영농조합법인은?

꽃뫼영농조합법인에서는 청양지역의 대표적인 특산물인 맥문동을 가공하여 차(茶)를 생산하고 있으며 지역 농가와의 계약재배를 통해 생산된 맥문동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 사용함으로써 지역 농민들에게 안정적인 농가수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4월 맥문동 축제를 개최하여 방문객에게 다양한 맥문동 가공품을 홍보하고 있으며, 체험과 민박을 통한 농가의 부수입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동체회사가 탄생하기까지...

2006년 설립된 꽃뫼영농조합법인은 현재 경영자를 포함한 16명의 회원 모두 지역주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50%가 맥문동 재배농가입니다. 법인 설립 후 대전시 동구 가양2동, 대전 통장협의회 등과 자매결연을 맺어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로 소득을 창출하고,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확산시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합니다.

■ 맥문동 가공상품 개발 및 판매

- 원기회복 등에 뛰어난 약리 효과가 있어 한약재로 쓰이는 맥문동을 차(茶)로 가공하여 맥문차, 맥문구기자차, 맥문보리차 등 소비자들이 편하게 마실 수 있는 티백차 3종을 시중에 선보이고 있습니다.

■ 다양한 농촌체험프로그램 및 숙박시설 운영

- 청양군 주변의 칠갑산, 천장호수, 고운식물원 등 관광명소와 연계하여 다슬기잡기 체험, 알밤 줍기, 모심기, 반딧불이 잡기, 산나물 채취 등 다양한 농촌관광체험활동을 제공하고 있으며, 근처 폐광에서의 박쥐동굴체험, 맥문동 떡메치기 등 이색적인 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방문객과 체험객들을 위한 황토방짬질방, 민박 등의 숙박시설을 운영하여 소득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라졌어요!

■ 매출

- 2009년 30백만원, 2010년 50백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본격적으로 맥문동 가공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한 2011년에는 약 100백만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 지역개발

- 수익 일부를 마을 친환경재배 교육, 조합원 자녀 학비 저리대출, 마을가꾸기 사업 시행 등에 사용하여 사회적 기업으로서 마을 전체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방문객

- 맥문동 축제와 농촌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방문객이 점점 늘어나 2009년 3천명, 2010년 3천명, 2011년 7천명이 꽃피마을을 찾았습니다.

■ 일자리 창출

- 맥문동 가공사업의 활성화로 상품개발, 영업, 생산, 사무 부문에서의 고용이 이루어져 2011년 4명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

01. 국악예술단 고창

임 현 호

skekgush@naver.com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456-1

판소리 문화예술의 전당, 고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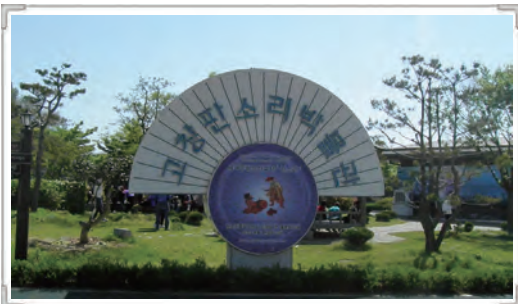
아름다운 우리의 가락으로 지역민과 소통

국악예술단 고창은?

『국악예술단 고창』은 2009년에 창단된 단체로 동리 신재효 선생의 뜻을 세계에 알리 국악 성지로서의 옛 명성을 되찾고 고창의 전통음악을 되살리기 위해 젊은 국악인들이 힘을 합쳐 만든 전통예술 단체입니다. 전통음악과 현대음악을 통해 고창지역의 대표적인 문화 예술을 발굴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이 탄생하기까지...

2009년 11월 창단 연주를 시작으로 매년 2회의 정기 연주회에서 창작곡을 통해 고창 지역만의 음악을 선보이고 있으며 매주 상설공연을 마련, 고창을 찾는 관광객에게 수준 높은 문화콘텐츠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또 매년 정규앨범을 제작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 예술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합니다.

■ 전통음악과 현대음악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공연

- 공연 수익이 전체 수익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고창군 내에서의 공연뿐 아니라 공연의 50%가 서울, 전남, 전북 등 전국 각 지역에서의 초청 공연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연은 퓨전가요, 퓨전기악곡, 일반가요를 국악으로 편곡, 타악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교육 및 체험학습으로 전통음악에 대한 관심 유도

- 판소리, 민요, 국악가요 등 전통음악에 대한 관심을 일으키고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통악기를 대여하여 교육과 실습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체험학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라졌어요!

■ 매출액

- 2009년 창단 첫째 3백만원, 2010년 89백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이를 공연의 제작비용에 투자하여 보다 양질의 문화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

- 2009년 국악예술단 창단 이후 고창의 문화공연 수가 크게 증가하는 등 전라북도 판소리의 맥을 이어감과 동시에 농어촌의 문화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녀노소 누구나 쉽고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문화를 제공함으로써 지역문화 예술 발전 및 지역주민과의 문화적 교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 일자리 창출

- 현재 11명의 정규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연단원 증원 및 교육을 위해 차후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02. 해풍친환경영농조합법인

한 강 희

☎ 063-543-3000

전북 김제시 청하면 관상리 732-22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으로 안정적인 수익 기반 마련



친환경 인증 받은 안전한 먹을거리를 우리 식탁에...

해풍친환경영농조합법인이란?

해풍친환경영농조합법인은 2007년 지평선고사리특화 작목반의 결성을 시작으로 2010년 작목반의 공동생산, 공동가공, 공동정산을 통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주민화합을 도모하는 등 공동체회사의 모습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11년에는 해풍친환경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였고 같은해 전라북도가 인정한 예비 사회적기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이 탄생하기까지...

해풍친환경영농조합법인은 고령화와 수익 감소에 따른 농촌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라 고령화된 인력에 적합한 새로운 재배작물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고사리 등 기계사용의 최소화과 친환경 수작업이 가능한 나물을 유기농 재배하여 상품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러한 친환경 나물 재배는 기존의 벼농사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익창출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합니다.

■ 다양한 유통판로를 통한 친환경 농산물 판매

- 고사리 등 친환경 나물을 재배하여 학교급식을 위한 식자재로 공급 하고 있으며 도시민을 초청해 도·농 교류행사를 개최하고 믿을 수 있는 친환경 농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는 직거래 시장을 열고 있습니다.
- (주)한국유기농업협회유통본부, (주)초록마을, 금만농협 등과 친환경 농·특산물 판매 사업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롯데슈퍼, 양재농협, 가나유통, 초록들(급식) 등의 판매처를 확보함으로써 다양한 판로를 통해 지역민과 도시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 친환경 농법연구를 통한 상품개발

- 2004년 새싹채소 친환경 농산물(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거쳐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의 장애인 생산품 인증기관(1호)으로 선정되었으며 어린잎채소 친환경 인증도 획득하였습니다. 또 2009년에는 어린잎채소가 안동시 특산품(제2010-3호)으로 지정되었으며 2010년에는 콩나물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획득하는 등 지속적인 친환경 농산물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라졌어요!

■ 매출액

- 2011년 법인설립 후 80ha의 면적에서 농산물을 재배하고 있으며 생산량은 500톤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 한해 약 50백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 소득증가

- 마을 총 30가구 중 거동이 불편한 지역주민을 제외한 25가구 88명이 법인에 참여하고 있으며 개별 벼농사 이외의 수익구조 개선으로 취약계층인 고령농과 소농의 소득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 양질의 상품 생산, 판로 확대, 수익 창출

- 다양한 판매망 구축으로 생산자가 농산물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고품질의 농·특산물을 제공받을 수 있고 여성 및 고령의 농어민은 안정적인 생산 및 수익기반을 마련하는 등 1석 3조의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1.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원칙

1. 조직형태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므로 조직의 부서·사업단 등은 원칙적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을 수 없다.
- 하지만 비영리법인·단체 등의 경우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익 사업을 수행하는데 용이하도록 별도의 사업단을 구성하여 신청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 사업단이 인사·회계·의사결정 등에 있어 모법인과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단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을 수 있다.

2. 사회적목적 실현

-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 이 때 사회적 목적의 실현은 단순히 취약계층 고용 또는 서비스 제공 비율을 만족시켰다고 하여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법 제8조 제1항 3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해온 경우에만 인정된다.

3.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 사회적기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공증된 정관,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회의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4. 영업활동 기준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기 위해서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해야 한다. 단순히 자원봉사자만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실적이 아닌 사업 계획만 있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 영업활동은 최소한 6개월 이상 영위하여야 신청 자격이 있고, 그 수입이 총 노무비 대비 30% 이상 이어야한다
- 다만, 유급근로자 수가 지극히 적어 영업활동의 실적을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매출·자산 및 부채 규모, 지역사회·기업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자원 동원 역량, 향후 수익창출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증여부를 결정한다.

2. 사회적기업 인증조건

인증요건	법(제8조)	시행령
조직형태	민법상법인·조합, 상법상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직형태를 갖출 것	(제8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직형태 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유급근로자 고용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사회적 목적 실현	당해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일 것	(제9조)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 <input type="checkbox"/> 사회서비스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법 제2조 제3호)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일 것 <input type="checkbox"/> 일자리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일 것 <input type="checkbox"/> 지역사회 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지역(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에 의한 지역사회 공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으로서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지역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일 것 <input type="checkbox"/>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전체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 비율이 각각 20% 이상일 것 <input type="checkbox"/>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위 각호의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로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판단
이해관계자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출 것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제10조)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의 기준 사회적기업 인증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에 해당조직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같은 기간에 그 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노무비(서비스나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을 말함)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정관·규약 등 구비 및 기재 사항 준수여부	법정사항(법 제9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상법상회사) 이윤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	



3. 사회적기업 만들기

■ 조직형태

◎ 인증 요건

- 1) 민법상 법인 · 조합
- 2) 상법상 회사
- 3) 비영리 단체 등
 - ▶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 심사 기준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 독립법인 형태의 지부뿐 만 아니라 등기부상에 지부가 명시되어 있고 회계 · 인사 · 의사 결정 등이 중앙회 본부와 독립 운영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예: 본부의 법인 이사회 회의록 공증 제출 등) 인증 가능
 - 모법인에서 독립하여 분리중이나, 행정적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는 불인증하고 추후 재신청하도록 지도
 - 영농조합 등 농업법인 내에 사회적 목적 실현에 있어 편차가 크므로 상법상 법인의 인증기준을 준용하여 공익성 높은 사업체만 사회적기업 진입 가능
- 비영리법인 · 단체 등의 경우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익 사업을 수행하는데 용이하도록 별도의 사업단을 구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단이 인사 · 회계 · 의사 결정 등에 있어 모법인과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가능하다.

- 모법인 산하 사업단이 사회적기업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인 내 사업단’ 이름으로 인증 가능

T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명서류 :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주무부처, 허가(등록) 날짜 기재), 법인등기부등본 중 택일, 사업자등록증 필수 제출 ● 불인정: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고유번호증, 장애인복지 시설신고증, 자활공동체인정서만 제출하는 경우 ● 공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증담당기관)공증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및 임명된 공증인이 담당하고 있으며,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 임명 공증인이 없는 지역은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공증인 직무대행을 임명 받은 검사가 담당 - 공증촉탁에 필요한 문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인이 촉탁할 때 : 인장, 본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관공서 발행의 신분증명서(법인이 촉탁인일 때는 대표자의 법인 인감증명서와 등기부등본 또는 초본) 2) 대리인이 촉탁할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의 인감증명서 1통(발행일로부터 6개월이내) - 위임장 1통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과 인장
-----	---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 인증 요건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심사 기준

-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등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인원은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유급근로자로 인정(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유급근로자는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닌 한 4대 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 받아야 함
 - * 유급근로자성 판단이 어려운 경우, 진흥원에서 해당 고용센터 또는 근로감독과에 자문을 요청하고, 자문 의견에 따라 판단

T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명서류 : 유급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4대 보험 가입 확인서(적용제외는 불필요), 임금대장
-----	---



■ 사회적 목적 실현

◎ 인증 요건

- 일자리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
 -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 지역사회 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
 - 지역(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에 의한 지역사회 공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으로서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지역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에 표시된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결정

◎ 심사 기준

-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 사회적 목적의 실현은 단순히 취약계층 고용 또는 서비스 제공 비율을 만족시켰다고 하여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법 제8조제1항3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해온 경우에만 인정된다.
- 사회서비스란, 개인 또는 사회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의미하며,
 - 개별 사례가 사회서비스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회적 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심의·결정

(법 제8조 및 시행령 제3조)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

1. 보육 서비스
2. 예술·관광 및 운동 서비스
3. 산림 보전 및 관리 서비스
4. 간병 및 가사 지원 서비스
5.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 관련 서비스
6.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7.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9호에 따른 고용서비스
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서비스

-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서비스 제공형의 경우에는 취약계층에게 시장가격보다 20~30% 낮은 가격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의 특성, 수혜대상자의 범위, 수혜대상자의 특성, 다른 대체재의 존재여부 등을 감안
 - 정부가 정한 훈련단가에 의해 구직자 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직업훈련기관, 정부제도 기준에 의거하여 서비스 대상자 및 서비스 단가가 정해지는 노인장기요양기관 등의 경우, 기본 활동 이외에 사각지대 계층 서비스 제공 실적 및 지속성 여부, 지역사회 재투자, 일반노동시장으로의 취업실적, 별도의 일 경험 및 심층상담 제공 등의 별도 증빙이 있어야 인증 가능
- **(일자리 제공형)** 사업 특성상 취업취약계층을 주로 고용하지만 일반시장에서 영업활동을 통해 영리를 추구해온 청소·경비업체 등의 상법상 회사는,
 - 취약계층의 단순 고용 이외에 복리후생 개선, 지역사회 재투자 실적 등 별도 증빙이 있어야 인증 가능
 - 재활용업종의 경우 별도의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이 필요한 지 여부는 단순 수거·판매로 취약계층 고용이 유리한 직종인지 중간 제조·가공으로 일정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종인지 등을 사안별로 육성전문위원회에서 탄력적으로 판단
- **(지역사회 공헌형)**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림으로써 지역사회에 공헌한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인증 가능
 -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지역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동 유형으로 인정 가능



- ‘지역’이라 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에 의한 지역사회공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인정(해당 지역에서 사회적기업이 필요한 이유, 지역 특성 등을 제출하여야 함)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현황과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실적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함

○ (기타형) 불특정 다수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사업의 특성상 취약계층 고용 또는 서비스 제공의 법정 비율을 계량화하기는 곤란하지만,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특별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인증 가능

- 이 때 조직의 설립취지, 조직이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취약계층 참여 및 지원정도, 지역사회 기여·공헌도, 참여자·수혜자에 대한 복지 프로그램 구비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
- 따라서, 계량화가 일정정도 가능한 재활용·가사간병·제조업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타형으로 인정하지 않음
- 또한 일자리 제공형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형에 준하는 구체적인 실적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취약계층 범위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 상 취약계층
 - 제1호. 저소득자

(단위 : 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10년 가구 월 평균소득	1,404,151	2,498,333	3,687,363	4,228,752	4,685,492
60%	842,491	1,499,000	2,212,418	2,537,251	2,811,295

<출처> 통계청 가수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중 10년 분기별 소득 평균임

* 확인방법: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세무서), 수급자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영신청결과통보서,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납부영수증), 소득금액증명(국세청), 급여명세표 등

- 제2호. 고령자
 - * 55세 이상인 사람
 - * 확인방법: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본 등)

• 제3호. 장애인

-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 확인방법 : 장애인등록증, 전문의가 발행한 장애진단서 등

• 제4호. 성매매피해자

가.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나.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등"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다.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라.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 * 확인방법: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 제5호.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지원금(‘11.1.1 시행, 前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급대상자

가. 청년 중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구직등록한 사람
 * 단,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수한 29세 이하의 청년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에 취업한 경우 구직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
 나.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구직등록한 사람

- * 현 시점에서는 외부자료를 통한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진흥원에서 해당 고용센터에 의뢰하여 확인

- * 고용센터는 의뢰 요청 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14일 이내 의견 송부



- 제6호. 북한이탈주민
 - *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보호대상자)
 - * 확인방법: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 제7호. 가정폭력 피해자
 - * 가정구성원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
 - * 확인방법: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60여개) 입소 확인서, 상담 확인증

- 제8호. 한부모가족 지원법상 보호대상자
 - *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 부”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
 -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다. 미혼자(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 라. 가부터 다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
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의 자

* 확인방법: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 제9호. 결혼이민자
 -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 * 확인방법: 국적취득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국적미취득자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 상 F-2 또는 F-5

• 제10호. 갱생보호 대상자

- *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여비 지급, 생업도구와 생업조성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 * 확인방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 제11호. 범죄구조피해자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4.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애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5. “장애”란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한다)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중상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 * 확인방법: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16호 서식(결정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 인증 요건

- ▷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 의사결정 구조 : 총회, 주주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 운영협의회 등

◎ 심사 기준

- 사회적기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공증된 정관,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회의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 운영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이 정관 등에 규정되어 있는지와 실제 회의 참석자 명단 등을 확인하여 판단

□ 다양한 이해관계자 중 최소 또는 필수 참여자 범주

예 시

- ▷ (구성) 임원, 자원활동가, 사무처, 지역본부 등에서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
- ▷ (설치 및 운영) ~ ~ 이해당사자간의 의결기구인 10명 이내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에는 노동자 대표 1인, 이용자 그룹대표 1인 또는 그 대변조직의 성원 1인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한다.
- ▷ 장애인을 과반수로 구성, 당연직위원은 소장(장애인)과 근로자 대표1인, 이용자 대표1인으로 둔다
- ▷ (선임) 위원회 근로자 대표하는 자, 사용자 대표하는 자, 정부를 대표하는 자, 노사관계 업무에 15년 이상 재직한 자, 공인된 대학에서 교수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중에서 선임한다.
- ▷ 총회(비영리법인, 단체)의 경우 정회원으로 구성되며 ~로 기재 시
 - 회원 요건이 정관 등에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및 실제 회원 명부 확인 필요
- ▷ 주주총회만 있고 별도의 총회 구성원(이해관계자)이 나열되지 않은 경우 불인증

Tip

- 구비서류 : 정관, 규약, 운영위원회 회의체 구성 및 회의록 등을 통해 의사결정 구조에 이해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 인증 요건

- ▷ 인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6개월 동안에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해당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노무비의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함
 - 영업활동을 통한 총 수입 : 재화·서비스 공급을 통해 얻은 수입의 총액
 - ※ 순수한 정부·자치단체 보조금·민간 후원금은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에 포함되지 않음. 다만, 자치단체등과의 서비스 위탁계약에 따른 수입은 매출액에 포함됨
 - 노무비 : 사회적기업의 서비스나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 (정부의 인건비 지원금도 노무비에 포함)

◎ 심사 기준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기 위해서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해야 한다. 영업활동은 최소 6개월 이상 영위하여야 신청 자격이 있고, 그 수입이 총 노무비 대비 30%이상이어야 한다.

T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수입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필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세무서)- 필수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세무서) 총계정원장(계정별원장, 매출장, 현금출납장 등)- 필수 현금출납부 결산보고서 등 ● 총노무비 재무제표(손익계산서) 임금(급여)대상 등
-----	---



■ 정관·규약

◎ 인증 요건

▷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1. 목적
2. 사업내용
3. 명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 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6.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상법상 회사의 경우 회계연도별 배분 가능한 이익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해야 함)
7. 출자 및 용자에 관한 사항
8.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9.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 상법상 회사인 경우에는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 잔여재산의 2/3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는 내용 포함
10. 기타
 - 사회적기업의 지부, 자원 조달, 회계에 관한 사항

◎ 심사 기준

정관이나 규약에 위 항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법인 내 사업단의 경우에는 모법인의 정관과 별개로 사업단의 규약이나 운영규정 속에 사회적기업육성법 제9조에서 정한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 위 기재사항에서 별도 규정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부속서류까지 모두 제출해야 함
 - 사회적기업육성법(제9조) 및 동법 시행령(제11조)에서 정한 정관 등의 기재사항이 구비되지 못한 경우에는 불인증
- 비영리법인의 경우 등기소 등기 또는 공증 반드시 필요, 영리법인의 경우 등기가 되므로 등기를 조건으로 하여 공증 불필요
 - ※ 정관과 회의록의 공증절차를 완화하더라도 사업단의 고용승계,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등에 따른 양수도 계약, 포괄승계 등 사안에 따라 공증절차는 필수적임
 - ※ 제출한 정관이 법무법인 등의 '공증'을 받은 것인지 등 확인(기관 자체에서 임의로 만든 것(내부 출력물)은 불인증)

정관 예시

5.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방식 및 중요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이사회, 운영위원회, 총회, 주주총회
6.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재정, 재산 및 회계(수익사업, 잉여금처분, 수익의 처분 및 관리), 이익배당, 수익나눔
7. 출자 및 응자에 관한 사항	재산 및 회계, 재정, 주식, 사채, 출자와 적립금
8.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회원(조합원), 조직과 임원(이사·감사), 사무처, 사무국

■ 이윤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상법상 회사만 해당)

○ 인증 요건

○ 정관이나 운영규정 등의 수익배분·재투자, 이익금의 처분에 관한 조항에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

○ 심사 기준

- 정관이나 운영규정 등의 수익배분·재투자, 이익금의 처분에 관한 조항에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
 - ※ (예시 : 정관) 이익금의 처리, 이익배당
 -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잔여재산의 2/3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 등도 상법상 회사에 준하여 동일하게 적용
- 상법상 회사의 당기순이익 발생시 ‘1/3에 한해 주주 및 질권자에 대한 배당’ 이 허용되나, 계량적 기준을 정관에 미기재시 불인증 처리
- 정관상의 형식적 명기 뿐 아니라 주주동의서 작성 여부, 지난 회계연도 이윤 사용 및 재투자 내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인증
- 이윤의 재투자 범위 예시
 - 지역사회 환원, 설비재투자·기술개발 등을 통한 사업 확장을 통한 추가 인력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봉급 인상으로 근로여건 개선(복지 강화),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이를 위한 적립금도 허용)



- ※ 대표, 임원, 직계존비속에 대한 성과급 지급은 사회적 목적으로 불인정
- ※ 사회적기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특정 종교조직으로 기부하거나 선교사업에만 사용하는 것을 '사회적 재투자' 라고 볼 수 없음
- 인증 이후 모니터링 시, 1년 이상 된 기업에 대해서는 이윤의 2/3이상 사용처 확인 및 주주가 동의하였는지 여부의 확인을 위해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배당에 따른 배분내역확인서 제출 필요

2011년 농어촌 공동체회사 사례집

발 행 인 농림수산식품부
편 집 인 농어촌사회과장 박경아
 농어촌사회과 김병준, 김희연
발 행 처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사회과
 02-500-1814

본 자료에 궁금한 점이나 농어촌 공동체회사 대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농어촌 공동체회사 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센터 : 전화 (031)420-3780 팩스 (031)422-7406